



www.kchcc.or.kr

누구나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21세기 화훼·원예 교육기관

한국 사이버 원예 대학

꿈을 이루는 즐거운 원예,
한국사이버원예대학



학장 | 최종수

지도 교수 | 이문원 최병철 손병남 박석근 왕경희 오소형 장정은 권오향

교육 강좌 |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과정(이론,실기) / 가정원예, 홈그린인테리어 / 분재, 기능성채소학 / 동양꽃꽂이 / 꽃다발, 꽃바구니, 테이블장식 / 플로리스트 컬렉션 / 유티피안 스타일 / 웨딩플라워, 공간장식 등 원예·화훼분야 576 강좌 운영 중. 2009년도 하반기 50강좌 업데이트 예정



2009
9

Vol. 206 September

우리문화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획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개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위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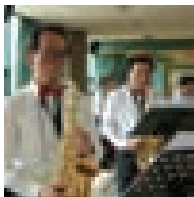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2009.9 우리문화

통권 206호 September



표지 | 부산강서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올여라 색소폰야' 강의 중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곽호환(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중(광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 주십시오.)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가 3,000원

02	칼럼
06	문화원을 듣는다 서천문화원
10	대담 문화원의 날을 앞두고
16	문화원 탐방 부산강서문화원
19	함께 읽는 시 정선아리랑
20	문화광장 기업과 문화의 만남
24	문화원 이야기
25	마산문화원 금산문화원
28	사람 책 간직하는 사람 안정웅
30	들여다 보기
34	지역사회와 박물관 미술관
38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사례 아무개씨, 미술관에 차 마시러 가다
44	연합회 소식
46	지역문화경영과정 제1회 나이없는 날
48	가고문적 열하일기
52	기획 한국의 예절
56	연합회 레이더
59	문화원 이모저모 우리문화 소식
60	원장동정



칼럼

성공적인 지역축제 기획을 위한 제언

지역 예술축제의
부대프로그램 기획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의 형태별, 기능별 유형 분석

국내에서 개최되는 약 1200개의 축제 중에서 예술장르를 소재로 한 예술축제는 약 22% 수준인 258개에 달하고 있다. 각 지역문화원에서는 매년 3개 내외의 지역축제를 주최하거나 주관으로 참여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글은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특정 예술장르를 소재로 한 축제인 지역 예술축제의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부대프로그램의 종류와 기능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통하여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의도로 쓰여졌다.

지역축제의 프로그램 중 부대프로그램은 대개 축제의 소재와 주제를 반영하는 대표프로그램 및 메인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축제의 소재와 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지만 축제활성화와 관객 집객 등을 위해 기획되는 이벤트성 프로그램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예술축제에서 부대프로그램의 범위를 예술장르와 주제를 반영한 예술행사 프로그램과 개폐막식 등의 의식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로 설정하고 부대프로그램의 형태와 기능에 따른 유형분석을 시도해보았다.

부대프로그램의 형태에 따른 유형분류

예술축제의 부대프로그램을 프로그램 형태를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1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① **학술행사형** | 심포지엄, 워크숍, 포럼, 세미나 등 축제와 연관된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로 축제의 사전 홍보나 전문가들 간의 정보 교환, 이론적 정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대형 공연예술축제의 경우 한두 건 이상의 학술행사가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커뮤니티 형 | 아티스트 간, 아티스트와 일반관객 간의 교류와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제 장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티스트와의 대화, 축제카페 등이 해당된다.

③ 아티스트교육 형 | 아티스트 교육형 프로그램은 예술장르의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갖고 추진되는 장르전문가들에 의한 마스터클래스 및 워크숍 행사 등을 포함한다. 학술행사가 이론적인 정립을 위한 정적인 행사라면 아티스트 교육형 행사는 공연예술의 기술적 전수를 위한 동적인 워크숍 행사들이 주가 된다.

④ 예술교육 형 | 예술교육형은 초보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워크숍, 강좌, 강연행사 등을 포함한다. 장르적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축제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마니아층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대부분의 공연예술축제에서 실행되고 있다.

⑤ 제작체험 형 | 지역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대프로그램인 공예제작, 탁본제작 등 축제와 연관된 공예 제작체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 문화관광축제에서는 참여, 체험형 프로그램의 운영이 중요한 축제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술축제의 제작체험형 프로그램은 장르와 연계된 제작체험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갖는다.

⑥ 전시 형 | 축제와 관련된 전시, 또는 행사를 주최하는 지자체와 연관된 전시, 또는 기타 전시 행사들이 해당된다. 기획 및 제작비용에 비해 축제 공간을 차지하는 범위가 넓고 상설행사로서 많은 관람객들에게 보여 질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많은 축제들에서 운영하고 있다. 공연예술축제에서는 포스터 전시, 의상전시 등 축제 소개와 연관된 전시들이 행해지기도 한다.

⑦ 부대공연 형 | 공연예술축제의 축제 소개가 되는 예술장르의 공연이 아닌 다른 장르의 공연을 초청하여 축하공연 형태로 공연하거나, 시민아티스트나 아마추어 아티스트들

의 프린지 공연, 거리공연행사 등 공연예술축제에서 정구 공연장 공연을 제외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야외 공연행사들을 포함한다.

⑧ 장터 형 | 지역축제행사장에서 큰 문제가 되면서도 특별한 대안을 찾지 못해 빠질수 없는 것이 '풍물장터' 인데, 공연예술축제에는 '풍물장터'의 형태가 아닌 '아트벼룩시장', '무대의상 경매', '세계음식장터' 등 다양한 수요층을 겨냥한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는 코너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역에서 개최되는 예술축제에는 특산물 판매코너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장터형 프로그램 중 추최축의 기획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⑨ 관광연계 형 | 축제행사장 주변 관광지 투어 등 지역관광을 통해 축제체류시간을 연장시키며, 개최지의 매력을 경험케 하는 프로그램 들이 해당된다.

⑩ 아트마켓 형 | 부산영화제의 필름마켓과 같이 공연예술축제의 출품작품들을 쇼케이스 형태나 홍보 부스를 마련하여 소개하고 국내외 공연초청에 대한 상담과 계약을 하는 아트마켓을 실행하는 경우다.

⑪ 공모, 경연 형 | 경연 프로그램은 축제 개최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효과적인 홍보수단이 되기도 하며 관계자들에게는 축제 참여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수단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공연예술제에서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공모나 경연형태의 참여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⑫ 난장 형 | 난장형 프로그램은 시민들과 아티스트들이 한데 어우러져 일탈형 공간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광장이나 거리에서 다양한 퍼포먼스와 음악공연이 한데 어우러지고 관객과 출연자가 구분되기 힘든 대동 한마당을 펼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⑬ 사전홍보 형 | 사전홍보형 프로그램은 축제의 사전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행사나, 축제뉴스레터의 발행, 사전홍보성 이벤트 등 축제 전에 개최되어지는 행사들을 지칭한다. 주로 홍보, 이슈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⑭ 이벤트 형 | 축제의 소개나 주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방

송,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유치하여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주거나 기업문화마케팅과 연계된 프로그램 등 일회성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또 축제 기간 중 관객들의 참여로 펼쳐지는 퍼레이드 성 행사나 거리행렬, 뭉싯 등 이벤트 성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해당된다.

부대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른 유형분류

부대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른 유형분류는 앞서 정리된 부대프로그램의 형태별 분류에 비해 좀 더 까다로운 작업이다. 부대프로그램의 기획 목적과 실제적인기능에 따라 부대프로그램을 분류해야 하는데, 같은 형태의 부대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축제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에 의해 기획되었을 경우 다른 기능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형태의 부대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축제에 따라 같은 기능을 하는 부대프로그램으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는 축제 기획 및 운영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하는가 하는 의도와도 직접적인 연관을 갖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외형만을 가지고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의미가 없다.

다만, 부대프로그램의 기능을 구분해 보는 것은 기능별로 기획될 수 있는 부대프로그램의 형태들을 제시하여 축제의 발전단계별로 요구되는 부대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른 프로그램 유형을 선택하는데 참고자료가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대프로그램이 축제에서 목표로하는 기능은 다음 여섯가지로 크게 나뉘볼 수 있다.

첫번째, 축제 인지도 확산 기능이다.

축제의 인지도가 약한 축제개발 초창기(태동기)에 필요한 부대프로그램의 기능으로 홍보이슈화를 통한 축제인지도 강화 프로그램, 집객유도를 위한 사전 프로모션 프로그램, 방송이벤트 프로그램 등이 이러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축제의 예술적(장르적) 정체성 강화 기능이다.

축제의 소재 장르에 대한 방문객들의 인지도가 낮을 때, 또 축제타이틀과 축제소재의 연관성이 직접적이지 않을 때 기획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이 해당된다. 음악축제의 경우 '악

기전시회' 같은 행사, 시민들을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들도 해당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축제가 태동기를 지나서 성장기에 진입했을 때, 정체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 시기에 필요하다.

세 번째, 지역 정체성 강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지역적 연계를 갖는 지역 예술축제의 경우에 필요한 기능으로 축제의 소재가 되는 예술장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지역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민들의 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해당된다. 지역예술축제의 상당수가 예술적, 장르적 전문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느라 이런 지역정체성 강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서 축제 정착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시기에 지역정체성과 예술적 정체성을 잘 조화시키는 경우 성공적인 지역예술축제로 안착을 하게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과 유리된 채 고고한 축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네 번째, 아티스트 교류 및 참여활성화 기능이다.

이 기능은 결국 예술축제의 주인은 아티스트들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예술축제가 해당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외면당할 때 그 예술축제는 존립근거가 약해지고 심각할 경우에는 와해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장르의 예술가 집단이 하나의 축제를 자신들이 주인인 축제로 인식할 때 그 축제는 탄탄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예술가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와 전문적인 고급 예술정보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아티스트들 간의 네트워크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들, 아트마켓 등이 이러한 기능들을 담당할 수 있다. 축제가 태동기를 거쳐 성장기에 들어가면 점차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 축제를 찾게 된다. 이러한 축제 발전단계에서 아티스트들의 탄탄한 커뮤니티 구축과 후호적 예술가 집단과의 강력한 연대는 축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 번째, 축제성 강화의 기능이다.

이 기능은 지역예술축제 역시 '축제'임을 인식케하면서 지속적인 생명력과 유기적인 발전을 가능케하는 기능이다. 축제에 사람들이 모이고, 축제의 주인이 분명해지면 점차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찾게되는데, 이때 축제가 전국규모의 또는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성도 높은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축제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파티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출연진 또는 출연진과 관객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뭉친 프로그램, 예술벼룩시장과 같은 장터형 프로그램, 가장무도회나 거리퍼레이드 등의 프로그램이 축제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여섯 번째, 마니아층의 개발 및 확산, 장르예술시장의 확대 기능이다.

이 기능은 예술축제가 갖는 공공성과 확산성과 함께 '예술'이 갖는 '공유적'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기능이다. 축제가 성장기를 거쳐 안정화 단계에 돌입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또 문화예술계에서 그 축제만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하는 시점이 있다. 그러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 이러한 기능들을 축제 태동기부터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축제와 그렇지 않은 축제는 전혀 다른 성장속도를 갖게 된다. 마니아층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지역예술축제가 방문객의 지속적인 확대와 충성도 높은 고객 증가를 위해 축제 초창기부터 끊임 없이 지속해야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예술체험 교육 및 캠프, 아티스트와의 만남과 대화, 아마추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나 경연행사 등이 적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을 투입하는 등 축제 기획·운영에 있어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위해서는 축제의 발전단계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아래 도표가 그런 기준을 만드는 기초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아래 도표는 기준을 만들기 위한 제안정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축제는 일반적인 발전단계에 따른 기능별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해당 축제가 가지는 특별한 개최목적과 기획방향에 따른 프로그램이 발전단계와 무관하게 요구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여섯가지로 크게 부대프로그램의 기능별 유형분류를 해보았다. 축제 부대프로그램의 기능별 유형분류는 필자에 의해 처음 시도되어진 것으로 축제의 부대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금까지 구색 갖추기의 성격으로 기획되어졌던 축제의 부대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대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각각의 지역 예술축제가 축제의 발전 단계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축제의 개최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대프로그램의 선택과 개발이 이루어질 때 지역의 예술축제는 지역민들로부터 또, 예술가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으며 성공적인 축제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위 글은 필자의 '국내 공연예술축제의 부대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축제발전단계	태동기	성장기	안정기	확산기
개최년한	1-3년	3-5년	5-7년	7-10년 이후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대프로그램	인지도 확산 기능	예술적(장르적) 정체성 강화기능 지역정체성 강화기능	아티스트 교류 및 참여 활성화 기능	축제성 강화 기능
지속, 상실 프로그램	마니아층의 개발 및 확산, 장르예술시장의 확대 기능			

윤성진 안양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겸임교수

위 도표는 축제 발전단계별로 필요한 축제 부대프로그램의 기능을 도표형태로 예시 해 본 것이다. 모든 축제가 동일한 발전단계를 거칠수는 없으며, 발전단계별로 하나의 기능을 하는 부대프로그램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축제의 발전단계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로만 부대프로그램이 구성되어있거나,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닌 곳에 많은 예산





| 문화원을 듣는다 서천문화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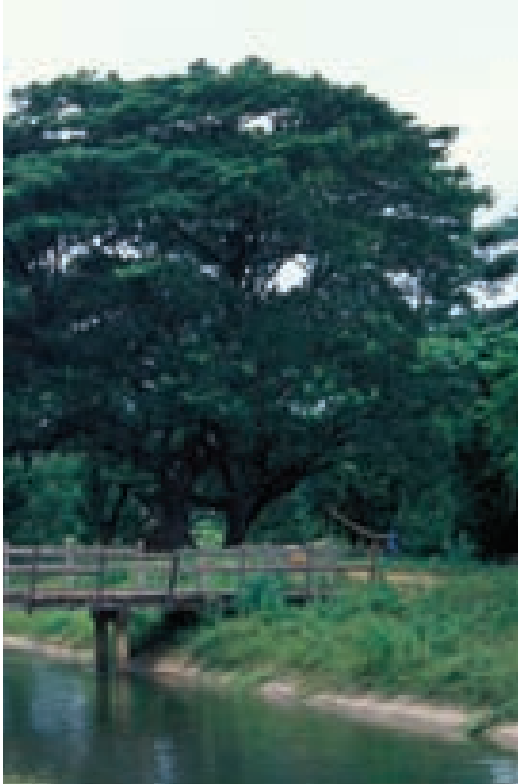
남당리에서 2시간 30분

지난 6월 19일, 대전에서 문학답사단 40명이 충남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南塘里)를 다녀왔습니다. 답사단의 일원 중에는 알만한 면면도 있었습니다. 남당리는 지도에서 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춘장대 출입로에 가깝지만, 100km/h와는 무관한 농촌입니다. 춘장대 해수욕장과 10분 거리입니다. 비교적 높은 산이 양팔을 쭉 뻗었으니, 동네 가운데에 개울이 흐르고, 양쪽에 농가가 웅기증기 모여 있고, 집집마다 마당 옆에 작은 밭이 붙어 있는, 전체적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웅숭하고 긴 동네입니다.

문학답사단이 남당리에 온 목적은 시인 임벽당 의성김씨(林碧堂 義城 金氏, 1492 성종 23년 - 1549 명종 4년)를 찾아보는 일이었습니다.

10시 반 정시에 도착한 일행은 마을회관 앞에 관광버스를 주차시키고 천천히 동네 길을 걸었습니다. 조롱박이 넝쿨을 뻗기 시작하고, 복분자가 익어 가고, 밤꽃 향기 흩날리고, 강낭콩이 제 키를 자랑하고, 길 옆의 뻐대는 멀쩡한 한옥을 개조하여 이사하고 싶다는 분, 언덕의 모시풀이 신기로워 살펴보는 분, 개울 안의 미나리가 불미나리냐고 묻는 분이 있었고, 상추, 썩갓, 풋고추, 가시오가피가 길을 안내하고, 뼈꾸기와 피꼬리의 합창이 이어지고,

30여 분 걸어 올라가, 임벽당 의성김씨가 살던, 집은 없지만, 집 옆에 500년 전에 심은 두 은행나무 사이의 잔디와 바위에 적당히 자리를 잡고 의성김씨의 시를 감상했습니다. 서천군향토문화연구회장 김재완 선생의 의성김씨 소개에 이어, 한학자 박현구 선생이 한시를 성독으로 읽고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중간 중간에 여류문인 전공학자인 문희순 박사의 해설이 곁들여 졌고요. 김동윤 선생의 대학 경문 성독 서비스도 있었고요. 방향을 잘 맞춘 6월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다음 7수를 감상하였습니다.¹⁾ 눈을 지그시 감고, 초등학교 3학년쯤 보이는 학생도,



은행나무 두 그루 중 오른쪽에 있는 은행나무.



題林碧堂¹ 2)

小洞幽深別一區 그옥이 깊은 작은 고을에
 膏肓泉石可忘憂 자연을 사랑하니 마음에 근심 잊을 만하네.
 人間是非渾無累 인간의 옳고 그름 얽매이지 않고
 花發知春葉脫秋 꽃 피면 봄인 줄 알고 잎 지면 가을인가 하노라.

題林碧堂² 3)

依林一室絕纖塵 숲 속에 집을 지어 속세의 풍진 인연 끊고
 只合幽人養性眞 숨어살면서 버 익듯이 참된 성품 기르네.
 閒枕聽來春睡足 한가롭게 베개에 쉬고 있으면 봄날 졸음 오니
 無爲恰似太初民 하는 일 없어 태초의 백성 같구나.

贈姪子(조카 강에게 준 시) ⁴⁾

骨肉浮雲散 뼈와 살을 나눈 혈육, 뜬구름같이 흩어졌는데
 那知今日親 오늘 만날 줄 어찌 알았으랴?
 遠尋多厚意 먼 곳에서 찾아오니 두터운 정도 많은데
 蔡藿不羞貧 푸성귀 찬에도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네.

贈別從孫泓(중손자 흥을 작별하며 준 시) ⁵⁾

地僻人來少 땅이 궁벽하여 찾아오는 이 적고
 山深俗事稀 깊은 산골이라 속세의 일도 드물다네.
 家貧無斗酒 집이 가난하여 말 술 없으니
 宿客夜還歸 자고 갈 손님도 밤에 돌아가네.

別贈(중손자 흥에게 작별하며 준 시) ⁶⁾

恨別逾三歲 한탄하며 이별한지 세 해가 넘었는데
 衣裘獨御冬 가죽옷 한 벌만이 추위를 막아주네.
 秋風吹端鬢 가을바람은 귀밑머리에 불어오고
 寒鏡入衰容 차디찬 거울 속엔 아원 얼굴 비치는구나.
 旅夢風塵際 풍진 세월 떠도는 나그네의 꿈속에는
 離愁關塞重 관문과 요새 겹겹으로 이별의 근심이네.
 徘徊思遠近 배회하면서 가깝고 먼 일 생각하니
 流嘆滿房櫺 끝없이 흐르는 탄식만 방안에 가득하구나.

貧女吟(가난한 여인의 읊음) ⁷⁾

夜久織未休 밤이 깊도록 쉬지 않고 베 짜는데
 憂憂鳴寒機 짚각 짚각 차가운 베틀 울리네.
 機中一匹練 베틀 속에 한 필 마련했는데
 終作阿謹衣 끝내 누구 옷 지을 건가?

賈客詞(장사하는 나그네에 대한 시) ⁸⁾

朝發宜都渚 아침 물가에 모여 편안히 떠났는데
 北風吹五兩 북풍 매섭게 부는구나.
 船頭各澆酒 뱃머리에선 제각기 술을 마시더니
 月下齊盪漿 달빛 아래 일제히 노를 저어 오네.

시 감상 다음에는 의성김씨의 시가(孀家, 俞汝舟) 집안인 기계 유씨(杞溪俞氏) 사당 청절사(淸節祠)를 둘러보았는데 마침 보수 중이었습니다. 오른쪽 산등성이에 있는 의성김씨의 산소에 참배하고 서둘러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준비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맡았는데, 북장이 집에서 일하는 옷 그대로이어서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 동네에서 생산되는 채소를 중심으로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우렁 된장국, 일행은 따뜻한 양념장에 향긋한 썩갠 상추쌈이 최고라고 외쳤습니다. 밥은 맨 밥으로도 먹을 만했습니다. 이장님은 집에서 담근 막걸리 한 잔 씩을 권했고, 음식에는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식당 한 칸에는 농산물이 소박하게 전시된 판매대가 있는

데, 전시된 상품을 일행이 모두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예약 주문까지 했습니다. 기계 유씨 집안의 동네 분은 교산 허균(許筠, 1569-1618)이 공주목사였을 때 이 동네에 여러 번 왔었다는 얘기를 해줬고, 연세 지긋한 한 분은 자기가 어렸을 때 몇 백년 묵은 정자나무가 불에 타는 것을 봤는데 일주일이나 걸렸고, 너무 애석하여 대신 심은 나무가 저 나무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뒷산에 누구인지 모르는 장군 묘가 하나 있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1시에 관광버스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1) 舒川文化제5집, 舒川郡鄕土文化研究會, 분지, 2002, pp.21-24.

2) 벼개에 수 놓은 시.

3) 벼개에 수 놓은 시.

4) “국조시산”에 수록된 시.

국조시산(國朝詩刪) | 조선 광해군 때 허균이 조선 전기의 한시(漢詩)를 뽑아 엮은 책으로 숙종 21년(1695)에 박태순(朴泰淳)이 간행하였다. 2권 1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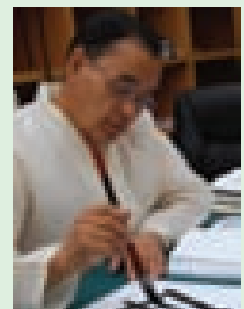
5) “국조시산”에 수록된 시.

6) “열조시집”에 수록된 시.

열조시집(列朝詩集) | 중국 청나라 때 전격익이 편찬한 약 2,000명에 이르는 명나라 시인의 작품집이다. 건집(乾集) 2권에는 황제를, 갑집(甲集)에서 정집(丁集)까지의 73권에는 연대 차례로 일반 작자를 수록하고, 윤집(閏集) 6권에는 고승·여승·신귀·외국인등의 특수한 인물을 수록하였다. 작자마다 소전(小傳)을 붙이고 문집을 낸 사람은 그 문집의 이름을 밝혀 놓아 사료(史料)로서 중요하다. 1652년에 간행되었다. 81권.

7) “열조시집”에 수록된 시.

8) “열조시집”에 수록된 시.



유성열 서천문화원장



대담 문화원의 날을 앞두고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 회장

10월에 있을 문화원의 날을 앞두고 대담을 가졌다. 올해 첫 회의 행사이니만큼 다양한 시도와 의견이 오갔다.

- 일시 2009. 8. 4 (화) 7:30 ~ 8:30
- 장소 서울 팔레스 호텔 더 궁 (호텔 1층)
- 참석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표재순 (연합회 자문위원)
윤성진 (문화원의 날 총감독)
장상호 (연합회 총무국장)
송은옥 (연합회 과장)

최종수 회장(이하 최) 문화원의 날을 앞두고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어 풀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며 또한 이런 대담을 계기로 이 행사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행사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의문을 푸는 것부터 참여를 유도하는 데 많은 힘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은 저를 비롯하여 표재순 위원, 윤성진 총감독, 연합회의 장상호 국장, 송은옥 과장이다. 간단히 연합회의 설명 후 대담을 시작하겠다.

장상호 국장(이하 장) | 문화원의 참여가 저조하다. 현재 4,70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국의 문화원 50% 정도의 참여율이다.

표재순 위원(이하 표) | 그 정도면 많다. 그런데다 한국 사람은 끝에서 모이는 게 있어서 걱정할 것 없다.(전체 웃음)

장 | 원장들이나 국장들은 우리문화를 읽을 거다. 그동안 얘기 나왔던 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낫다.

송은옥 과장(이하 송) | 자세한 내용들은 아시니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다. 기념식 공연은 2부를 축소 90분으로 구성예정이다. 윤 감독과 상의하면서 한 공연당 10분 정도 할애할 경우 16개 문화원이 전부 공연으로 채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8개 정도만 참여시킬 예정이다. 실외에서는 다른 형태로 지역을 알리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다. 지역에서 만남의 장을 열 생각이다. 많은 것을 보여 주다가 보다는 강조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거다.

인원 동원은 윗분들이 진행하고 있다. 시상 부분에서 기본적인 상은 종전대로 진행하며, 신설된 상은 이종인 소장님과 윤성진 감독, 이홍재 원장과 논의하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주는 게 효과적일지 고민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의 목적에서 맞추어 시상하면 어떻게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주 안에 틀이 나올 것이니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다.

윤 | 말씀대로 기획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의전, 안전, 조명, 무대 등 각종 세세한 부분을 담당하며 준비하고 있다. 16개 시도지회가 모두 공연하게 되면 채 5분을 못한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곁레다. 한 공연당 10분으로 보고 있다.

그래도 교체시간 포함하면 총 120분 걸린다. 시작시간이 2시로 되어 있는 30분이라도 당길까 생각한다. 지방분들은 4시면 가더라. 모든 프로그램이 5시에는 끝나도록 해야 한다.

최 | 일찍 오는 사람들은 식전행사로 풀어주자. 식사문제는 어떻게 될지?

표 | 식사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시간을 조금 당기는 것이 좋겠다. 앞마당 프로그램으로 서너 프로그램 짜고 본 공연으로 들어가 공식으로 또 공연하고 식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

밖에서 한다고 하면 인원이 분산될 것이다. 들락날락할 것이다. 혼란이 있겠다. 또한 야외행사라면 우천 시의 대비도 걱

정해야 한다.

윤 | 문화원만의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기 하지만 실질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서로 어울리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문화신문, 전시관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우천시를 대비해 외부에서는 텐트를 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거다.

표 | 그렇다. 자바라 텐트가 공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질적으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신경 써야 한다. 문화신문 아이디어 좋다, 전시관 해두면 볼거리가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나.

윤 | 문화원에서 오는 만큼 시민이 모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닐 거다. 평일 낮 시간이라 더욱 그렇다,

표 | 손님이 왔을 때 서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동아리 방안을 활성화시키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향우회라고 할까. 같이 묶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핏줄 빠져 나가듯이. 향우회와 지방문화원하고 결연시키는 운동을 캠페인을 해보자. 일반 관객을 모으기는 어렵다.

장 | 국악방송풍물대회를 가보니까 경남 거창인가, 군수님이 올라온 경우가 있었다. 재경 향우회 사람들까지 오더라. 적어도 문화원에서 출연팀들의 향우회는 그들을 보기 위해 온다. 시장 군수까지도 아마 올라오게 될 것이다.

표 | 내년 지자체 선거가 있다. 그것을 노리자. 관심을 가지자





표재순 위원



윤성진 감독

고 하자. 출연팀이 아니더라도, 군수가 올라오도록, 난 일반 관객이 오리라고 생각안 한다.

장 | 서울의 가족들, 시골의 부모님들이 오니까 따라오는 것도 있다.

표 | 프로그램은 그대로 엮고, 동아리적으로 묶는 요소가 중요하다, 10월이면 충분하다.

최 | 지방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가족 출연진 향우회 등 연락을 취하는 것이 시급하겠다.

표 | 더 좋은 방법으로는 기업하시는 분들, 관에 있는 분들, 찾아가지고 모셔야 한다. 내 고장 살리는 게 재정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다. 이분들을 모시고 한 시간 정도 할애해서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아저씨, 아재, 형님, 동생 하면서 만나도록 하자.

장 | 블록별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표 | 향토심을 자극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화 문화원 파이팅, 이렇게 지역별로 외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진행될 거다.

최 | 천막전시 등을 내부 프로그램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없을까

윤 | 인원이 수용이 안 된다. 그런데다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너무 시끄러워진다. 그리고 확인해야 할 것이 식사다. 도착해서 점심을 해결해 드려야 할지 그렇지 않아도 될지. 차라리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지 걱정이다. 그 근처의 식당을 공지해야 하지 않을까.

송 | 주변에 마땅한 식사장소가 없으니 미리하도록 해야 한다.

표 | 식사는 아예 제외하는 게 좋겠다. 그것까지 손쓰기가 어렵다.

장 | 다만 음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화원별로 음료코너를 두고 그건 행사 끝날 때까지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표 | 서울지회와 연계해 아리수를 주도록 하는 게 좋겠다.

윤 | 송파구 협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자원봉사활동, 안내, 경호 등 협조 받도록 진행하고 싶다

최 | 송파문화원장하고 이야기 하자. 나이 없는 날도 마포구와 협조할 예정이다.

표 | 자원봉사도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봉사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하라는 것 있지 않나. 한번 알아보자. 일일이 우리가 신경 쓰기 어렵다. 문화지킴이 등의 이름을 붙여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자.

윤 | 송파는 시민자원봉사가 잘 되어 있다.

장 | 서울의 문화봉사자들을 미리 연락해서 부르자. 행사장에 의자를 깔아두고 향우회에서 오신 분들만 모시려고 해도

그 인원이 엄청 필요할 거다. 표시를 다 해두어 의자에 앉도록 전담맨이 붙어서 안내해야 한다.

표 | 재경향우회 30명 이상 무조건 오는 것으로 연락망을 둘러자.

최 | 그래서 남은 두 달이 연락하고 짜 모으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국순방계획도 세우고 있다. 직접 문화원을 찾아다니며 홍보할까 한다.

지회 회의나 총회, 간담회 할 때 얘기하고 싶다. 직접 대화가 되는 데는 직접 해보고 싶다.

표 | 국회의원을 동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문화원의 행사가 문화원만의 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자. 국회 보좌관들 지자체 장들의 명단을 되든 안 되든 쪽 뽑아보자. 또한 앞서 이야기한 향우회 모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윤 | 형식적으로 모이는 행사가 아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문화원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 문화원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을 알려야 한다.

최 | 그 내용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달하자. 왜 와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우리문화 발송할 때 같이 넣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문화원장을 통해서 향우회 연락망을 잡자.

송 | 막연한 얘기로 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 이 행사가 필요한지를 알려야 한다.

표 | 향우회 명단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움직이는 건 어려울 수 있다. 문화원장이 직접 알아보도록 권고하자. 우리 인원으로서는 어렵다. 고장의 사람들을 부르자. 내고장 문화인사를 참여하도록 유도하자.

송 | 문화원에서 직접 초청하도록 한다면 초청장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서 내려주도록 해야 한다.

윤 | 회장님이 초청의 글을 쓰자. 일종의 권유문이 되겠다. 전체가 참석해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명분을 홍보해야 한다.

윤 | 많이 참여하는 지역을 배려할 거다.

표 |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경품행사도 있다. 상품을 주자. 경품으로 자동차 한 대?

송 | 부상 협찬을 받도록 하겠다. 물품 협찬이 중요할 수 있다. 꼭 이런 상품을 드릴 테니 오세요, 라는 것도 있지만 먼 길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격려 차원에서 좋겠다.

윤 | 잘 되면 지역문화대전으로 해서 지역의 특산품이나 인물 등 지역을 대표하는 알리미 역할을 할 수 있게 고장이 많은 문화인, 예를 들어 탤런트 가수 시인 등을 데려오게 하는 게 좋겠다.

자리가 풍성해질 거다. 규모면이나 내용면에서. 화제가 될 요소가 충분히 있다. 그런 분들과 연계해 문화원홍보대사를 뽑는 건 어떨까.

표 | 임명식을 하고 정식으로 위촉하면 되겠다. 최소한 시도 지회별로 16명. 이들이 문화원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홍보대사가 되는 거다.

각 문화원이 선정하고 그분들이 참석하게끔 유도하면 된다. 최소 100명만 와도 홍보가 될 거다.

금년엔 안 되더라도 문화원별로 225명을 뽑자. 문화원장님들께 의견을 내보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목적 아니냐.

윤 | 지역문화원들에 내리는 미션이 많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참여만 이끌어내는 데도 힘들다.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겠다.

최 | 결국 문화원장이 발 벗고 뛰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나또한 시도지회 순방 계획을 잡고 있다.

참여가 저조한 곳을 중심으로 직접 뵙고 말씀드릴 계획이다. 지역문화가 경쟁력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주었으면 한다.

표 | 문화라는 것은 흘러야 한다. 강요해도 안 되는 것이고. 문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우리 문화원이 기여하도록 노력하자. 전통은 깨야만 흘러간다고 했다.

최 |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모여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다. 남은 시간동안 모아진 지혜 적극 발전시키며 문화원의 날 행사 준비하겠다. 고맙다.



송은옥 한국문화원연합회 과장

Q&A로 보는 “문화원의 날”

여러모로 각 지역의 문화원에게 힘든 한 해다. 이런 때 문화원의 날이 갖는 상징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도록 어떤 골자(주제)를 잡았나.

문화원은 지역에서의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역 문화계에서의 활동이 중앙정부나,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관, 단체들이 과거보다 많아져서 문화원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문화원의 지역문화계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역문화원의 고민과 비전설정을 통해 문화원 역할의 고유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지역문화원의 과제가 되고 있다. 중앙에서는 전국 225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전국적 문화기구로서의 문화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과 단합의 필요성, 전국적 차원의 ‘문화원’ 홍보를 위해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그에 맞춰 전국규모의 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이다.

벌써 8월이다. 연합회에서는 문화원의 날 행사를 두 달여 남겨둔 상태다. 진행 상황이 어떠한가.

행사개최 장소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행사운영을 담당할 실행사도 선정된 상태이다. 행사의 구체적인 진행,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이미 2차례 자문위원회를 통해 정리되었

으며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연출(윤성진)이 중심이 되어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다. 이제 각 문화원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는 단계가 남아있으며, 문화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모든 문화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문화원의 한마당을 펼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문화원의 날 행사 정식명칭을 두고 이야기가 많았다. 자문위원 뿐 아니라 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다. 행사의 기본 맥락을 정확히 관통한다는 점에서 행사의 제목은 중요하다.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

행사의 타이틀은 행사의 성격과 방향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문화어워드, 225색 지역문화의 향연, 대한민국 문화원의 날, 우리 문화올림 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 전국 225개 지자체의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을 강조하는 ‘225색 지역문화의 향연’을 부제로 하고 문화부와의 협의를 통해 ‘2009 전국 문화원의 날’을 행사명칭으로 확정하였다.

문화원의 날의 시작, 문화비전선언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방 분권이 가속되면서 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각 지자체에 이관되는 추세이고 그 결과 지방문화원의 입지가 좁아드는 상황. 곧 각 지방의 역사적 배경과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업적이고 획일화된 지방문화가 만연되고 있는 현실을 배태하게 되었다. 특화된 지방문화 없는 문화로써 문화의 시대라는 21세기를 개척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전국 225지방문화원의 이름으로 새로운 개념의 문화비전을 선언하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다문화시대를 선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함으로써 21세기 문화시대를 개척하고자 함. 1947년 10월 9일 강화문화관이 처음 개원한 날을 기려 매년 10월 10일로 정함.

문화비전선언을 방점으로 찍고 연합회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어떤 것들이 있나?

올해 10월 14일 행사를 하는 것은 장소대관때문에 변경된 것이다. 매년 10월 10일이 문화원의 날인 것은 변동 없으며, 문

회원 스스로 자축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올해 10월에 열릴 문화원의 날 제정, 다문화사업, 문화예술교육사업 등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심화 확대(9월에 나이 없는 날 축제가 흥대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문화원의 날 세부사항에 대해 담당자가 간단히 설명해 달라.

올해 문화원의 날은 오는 10월 14일(수) 14:00 ~ 18:00에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국 225개 지방문화원 및 문화예술인 및 일반인이 1만여 명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행사로 주요행사는 기념식(시상) 공연마당(문화원 및 수상자), 지역문화전수마당(난장), 225개 우리고장 문화신문 및 자료전시, 만남의 장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문화원의 참여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지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공연 및 참가경비는 문화원 자체부담(공연, 교통비, 식비, 현수막 제작 등)으로 되어 있어 상황이 좋지 않은 문화원에게는 부담이 크다. 문화원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할까.

문화원의 날은 지역문화원이 참여하지만, 각 지역의 문화계를 대표해서 참여한다고 보아야 맞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전국 문화원의 잔치를 연합회와 정부에서 100% 지원해줄 수 있다는 기대 보다는 문화원들이 자신들의 역량과 의지로 행사를 만들고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이미 지역문화원은 그럴만한 충분한 역량과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다. 전국 문화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문화원의 날' 행사는 각 문화원들이 그런 지역내에서의 영향력을 한번 발휘해볼만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문화원의 날이 갖는 효과가 어떤 것이라고 보나.

225개 문화원을 통해 우리문화 발굴과 활동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우리문화의 근간인 지역문화를 한자리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문화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우리문화 축제로, 문화원의 활용가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지역문화 종합전시장으로 발전 기대. 지역문화상 수상자는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전국의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문화의 공생(共生), 공존(共存), 공진(共進)을 이룸 전국 문화원의날을 통해 지역문화와 문화원의 비전을 점검하고 지역문화 중심으로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원이라는 조직만큼 광범위하고 자생적인 단체는 드물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만약 또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이번행사를 계기로 수십 년 간 지속되어온 문화원의 활동이 지역의 향토문화를 보존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고, 또, 지역 향토문화의 발굴과 보존, 현대적 활용의 의미를 인식시켜야 한다. '전통이 미래다'는 슬로건처럼, '전통' 속에서 '미래'의 문화를 이끌어 나갈 지혜를 발견하여 지역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문화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문화원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의미를 넘어서, 이렇게 문화원들의 미래비전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크다. 또, 이 행사를 발전시켜 '지역문화대전'으로 확대 정착해야 하며, 매년 전국의 지역문화의 정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되고 전시되는 자리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장상호 한국문화원연합회 국장

문화원 탐방

부산강서문화원

“누가 이들 좀 말려주소” 부산강서문화원의 ‘나이 없는 날’ 준비기

더운 날씨가. 덥다 못해 찜통 안이라는
구태의연한 말이 꼭 떨어지는 날씨가. 구
름은 많은데 햇볕도 쏟아지고 기온도 높
다. 문화원의 타 강좌조차도 방학을 맞이
한 8월의 어느 날, 문화원사를 올리는, 도
무지 그치지 않는 이 소리의 꼬리를 잡고
들어가 본다.





부산강서문화원

농촌마을에 분 색소폰 바람

부산강서문화원은 부산 시내 보다는 김해에 가깝다. 도시라기보다 농촌에 더 가까운 동네다. 행정권은 광역시이면서 생활권은 농어촌지역으로 자연마을(157개)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생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곳. 그런 곳이다.

부산강서 지역 일대에 작년 한차례 소위 한류보다 더 무섭다는 색소폰 바람이 불었다. 무슨 소리가 하니 어르신문화학교의 일환인 '올어라 색소폰아! 로 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단단히 어필을 한 모양이었다. 인기몰이 덕분에 할아버지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악단에 할머니, 심지어 젊은이 소리 듣는 사람들도 가세했다. 색소폰 자체가 워낙 고가인데다 무겁고 호흡을 많이 요구한다는 점에서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나 부산강서문화원의 프로그램 개발로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농사지으라 색소폰 불으라 바쁜 어르신들

다른 문화강좌도 모두 방학이라는 이 더운 여름에 색소폰 강좌가 열렸다. 9월 9일에 있을 '나이 없는 날' 행사 준비로 한창, 5월부터 시작된 이 강좌는 총 5개월 과정으로 이제 막 초보 딱지를 뗌 셈이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겨우 3개월여의 시간만으로 제대로 부는 시늉이라도 할 수가 있을까 하였는데 성과는 가히 놀라웠다. 무거운 색소폰을 들고 입술이 부르드도록 분 덕에 이제 초급과정의 어르신들은 곡을 연주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잘 모르는 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생업으로 농사지으라 일 나가라 바쁜 어르신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만 즐거운 일이었을 뿐. 색소폰을 부느라 여념 없는 어르신들은 간단한 취재가 있다는 말에 모두 옷을 갖춰 연습을 하고 있었다. 와이셔츠에 빨간 도트무늬 보타이를 하나씩 매고 진지한 자세로 연주하는 모습은 어느 오케스트라 부럽지 않았다.

우린 방학이 읊서 무조건 연습, 또 연습!

"남은 20일 동안 맹연습할 거여. 난 색소폰이라면 완전 깜깜 모르는 초짜였는데 문화





김영실 부산강서문화원장

원 선생(색소폰 강사) 덕에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영광스럽지. 공연도 하고 멋진 옷도 입고 멋쟁이가 된 거야.”

올여라 색소폰 강좌를 듣고 있는 이수균(66세) 할아버지는 연주에 집중하느라 긴장된 얼굴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것이 이수균 할아버지가 말하는 영광의 힘인지도 모르겠다. 이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 강석찬 씨조차도 이 정도로 빨리 배우실 줄은 몰랐다며 혀를 내둘렀다. 처음에 강좌를 시작했을 때 어르신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심려했지만 곧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색소폰이라는 게 우리 같은 세대들에게 정말 좋은 것이라니까. 이걸 불려고 들면 얼마나 오래 복식호흡을 해야 하는데, 우린 어렵고 배고픈 세대라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 그랬는데 이렇게 음악을 접하니 정서함양에 너무 좋아. 암. 그리고 이 지역에 오래 살았지만 이 강좌에서 만난 분들을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만나 친목도 다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반강호(66세) 할아버지는 색소폰을 사귀며 좋은 친구들을 얻었다고 연신 싱글벙글이다. 방학도 없이 이렇게 매일 얼굴을 맞대고 연습을 하니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1단계로 색소폰연주를 위한 음악의 기초와 악보 익히기 교육 후에는 지역, 단체, 세대간 연계 활동 및 사회참여도 계획하고 있다. 문화원행사 뿐 아니라 지역축제, 복지관, 전철역 등에서 연주하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개최 또한 욕심내고 있다고.

문화원의 살림꾼 사무국

문화원의 걱정은 대개 김영실 문화원장의 몫이다. 행여 어르신들이 무리한 스케줄로 탈이라도 나면 어쩔지 또 9월에 있을 서울 행사에 가다가 무슨 사고는 없을지 걱정이 크다. “색소폰 연주로 어르신들의 기대가 매우 크죠. 그만큼 저희의 걱정도 커질 수밖에요. 그래서 다각도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농사짓느라 바쁘신 분들인데 저희가 더 열심히 지원해 드려야죠. 마음 놓고 신나게 노실 수 있게끔.” 김영실 원장은 혹시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챙기는 눈치다. 뭐가 문제고, 뭐가 안 되고 한참 이야기 해보지만 그 모든 것이 ‘하겠단’ 의지의 반증인 셈.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따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 없는 날 행사를 앞두고 차량지원비, 식사비 등 재정을 꼼꼼히 따져보지만 지방의 작은 문화원으로서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 사무국에서는 만반의 준비로 노력한다. 더도 덜도 말고 그게 강서문화원이다. 문화원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강서문화원이야 강서문화예술한마당, 학생습씨자랑, 회원작품 전시, 낙남취호대회, 문화가족 문화탐방 및 청소년 문화탐방 등 첩첩산중이지만 이번 산 어떻게 넘을지 힘겹고, 또 즐겁게 버는 중이다. 9월 9일 게 샐거라 하면서, 그건 아무도 못 말릴 일이다.

부 산 강 서 문화원



정선아리랑

유경은 정선문화원장

들꽃따라 피어난 정선아리랑!
고려충절의 님이 서러있고
민족의 서러움과 통일 염원이
그대로 배어 있네

삶의 애환을 담은 구성진 가락은
산을넘고 물길따라 곳곳에 번져
모든 아리랑 시원이 되었네

복사꽃 진달래꽃 이 강산을 불태우고
땀사공에 임 떠나 보낸 아낙네의
정한은 조양강 소리되어 유유히 흐르네

정든님 안고도는 물레방아는
오늘도 쉴 줄 모르고 돌고
겨레의 혼을 담은 정선아리랑은
유창한 선율타고 그칠 줄 모르게
이어지네~~~~



문화광장

기업과 문화의

만남



문화 예술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분리될 수 없는 생활의 일부지만 문화 예술 그 자체는 직접적으로 재화를 생산해내는 생산 활동이 아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 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13~17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메디치가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티첼리나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르네상스의 정점에 선 화가들이 모두 이 가문의 경제적인 후원을 받아 예술 활동을 펼 수 있었다.

서양 고전 음악도 후견인 문화가 없었다면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베토벤의 '라주모프스키' 사중주곡이나 피아노 3중주곡 '대공', 모차르트의 교향곡 '하프너'는 모두 그들의 후견인에게 헌정된 곡으로, 곡 이름에 그 후견의 흔적이 남아 지금껏 전해지고 있다. 귀족가문이나 재력가의 지원이 없었다면 다빈치나 베토벤은 예술 활동에 전념하기도, 결심을 맺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도 문화 예술 분야에서 후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만개로 그 어느 때보다 부자가 많아서인지 후원자의 수도 많아졌고 문화 예술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될 정도다. 선진국에서는 문화 예술 분야에서 기업의 지원 활동이 활발하다. 미술 무용 음악 등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기업의 후원 없는 활동은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예술에 대한 후원 개념을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메세나(Mecenat)란 이름으로 제도화시키고 있다. 메세나는 기업이 축적한 이윤의 일부를 예술 후원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메세나라는 이름은 예술을 적극 후원했던 로마의 한 정치가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1967년 미국에서 기업 예술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에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발족되면서 민간 차원의 예술지원 활동이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삼성그룹 문화 예술 지원 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리움미술관이나 호암미술관, LG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내 공연 문화의 핵심으로 성장한 LG아트센터는 국내 메세나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한남동에 자리잡은 리움미술관은 한국 문화의 정수인 국보급 문화재와 국내외 현대 미술 작품이 어우러져 있는 한국 문화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라 할 수 있다. 용산 국립박물관과 과천 현대미술관과는 또 다른 각으로 과거와 오늘의 문화를 보듬고 있다.

이 미술관은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개인 컬렉션에서 출발했지만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하드웨어(미술관 건립)를 지원하면서 당대의 일급 건축가로 꼽히는 마리오 보타와 렘 쿨하스, 장누벨이 설계한 세 건축물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의 리움미술관으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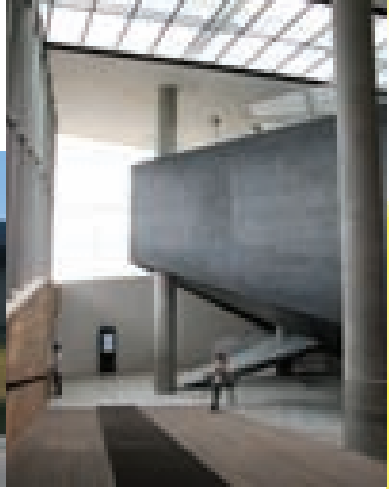
LG그룹은 아트센터의 운영을 통해 한국 공연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2000년 3월 문을 연 LG아트센터는 민간에서 운영되는 공연장임에도 국내 어느 공연장보다 내실 있고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꼽힌다. LG아트센터의 평판은 훌륭한 하드웨어(공연장)와 수준 높은 자체 기획 공연에 대한 평가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다. 클래식 무용 연극 재즈 월드뮤직 등 전 장르를 넘나드는 연 20여 편의 기획공연

은 'LG아트센터 기획 공연'이라는 점만으로도 작품의 품질 보증서로 통용된다. 올해 별세한 피나 바우시 무용단이 LG아트센터의 초청공연으로 한국팬과 만났고 댄스뮤지컬 <백조의 호수>와 <오페라의 유령> 한국판 공연은 국내 뮤지컬 불에 불을 당겼다.

LG아트센터의 한해 전체 예산은 80여억 원. 이중 반 정도는 공연 매표 수입과 대관 수입으로 충당한다. 나머지는 LG연임문화재단의 후원으로 꾸려나가고 있다. 이에서 보듯 LG아트센터는 LG쪽의 후원이 절대적이다. 강남 요지인 역삼동에 6백 30억원 짜리 극장을 지은 것도, 5백억 원대의 자산을 기증해 이자 수입으로 극장운영 자금을 충당하게 한 것도 모두 LG그룹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럼에도 LG쪽에선 극장 운영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는다. 클래식 무용 연극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프로그램을 기획, 섭외해 무대에 올린다. LG아트센터에서 무용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최정휘 팀장은 "후원자의 물질적 지원도 중요했지만 소신을 갖고 색깔을 찾을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게 큰 힘이 됐다"라고 말했다. LG아트센터의 상징이 된 기획 프로그램에 상업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문화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최씨는 "공연장을 지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이미 메세나가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물론 LG는 LG아트센터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LG아트센터가 문화 소비자들에게 최고 수준의 문화 공연장으로 통하도록 만드는 데 전폭적인 후원과 자율성을 부여했을 뿐이다.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이 저변이 취약한 국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문화 키움 활동도 돋보인다. 국악 분야는 저변도 그렇고 대중의 인식도 특히 취약하다. 이는 메세나 협의회에서 내놓은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2008년도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금액만 놓고 볼 때 국악은 18억3천2백만 원, 전통/민속 분야는 15억2천2백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통 공연 기획자인 진옥섭씨는 “전통 문화 예술인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대중에게 다가가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도 문제다. 기업체 후원은 사실상 거의 포기하고 있다”라고 현황을 전했다. 기업에서도 전통 문화 예술 지원보다는 ‘폼나는’ 클래식 등 서양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선호하고 문화 수요자들도 전통 공연에 대해 인식이 낮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은 메세나 활동을 국악 지원으로 특화하고 있다.

이들은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국악 명인을 초청해 대보름 명인전과 퓨전 국악 음악제인 창신제를 열고 있다. 또 지난 2007년에는 ‘락음국악단’이라는 전문 국악연주단체를 창설하기도 했다. 일시적인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연주인들을 키우는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열린 대보름 명인제 2회 행사에는 국악을 대표하는 최정상급 명인 11명이 국립국악원 우면당 무대에 섰다.

박용호의 대금독주, 민의식의 가야금산조, 이흥구의 학춤, 정대석의 거문고독주, 안숙선의 판소리 등이 이어졌고 각 명인들의 독주가 진행되는 동안 양쪽에 마련된 특별 무대에서 동양화가인 수당 김중국과 한국 서단의 거봉 초정 권창륜이 등장해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그림과 글을 각각 선보이는 예-서-화가 녹아든 종합 공연을 펼쳐 화제를 모았다.

크라운해태제과 그룹의 국악 지원 뒤에는 운영달 회장의 국악 사랑이 있다. 윤 회장이 국악 분야에 특화해서 지원하게 된 것은 그가 대금을 배우면서 국악 선율에 빠져든 것이 계기다.

그는 아예 회사 경영에 AQ(Artistic Quotient, 예술가적 지수)를 도입하고 있다. 문화계에서도 일시적인 지원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지속적인 기량의 연마와 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이 계속 활동할 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발성 지원을 통해서서는 이루기 힘들다.

메세나 협의회에서도 이런 점에 착안해 예술단체와 기업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예술 지원 매칭 펀드가 그런 예이다. 메세나 협의회 측에서는 금융 위기로 지난해 가을 이후 경기가 얼어붙었지만 매칭 펀드에 최근들어 중소기업도 가세하는 등 저변이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예술 지원



매칭 펀드의 경우 올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4월 말에 신청이 마감 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매칭 펀드는 중소기업이 10을 내놓으면 정부에서 10을 더해 중소기업이 지정한 예술단체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7~2008년까지 성도GL이 헤이리 오케스트라와 맺어지는 등 총 68커플이 결연을 맺고 25억여 원이 지원됐다.

국악 등 전통 문화 못지않게 지원이 취약한 분야는 지방문화이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이나 문화 활동의 서울 집중 현상은 지나치게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에서 '찾아가는 메세나 사업'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낙도나 벽지 지역과 소외 계층을 찾아가 문화를 소비하는 행위를 나누는 문화 나눔 사업을 벌이지만 이는 단발성 기획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최근 들어 통영국제음악제나 대관령국제음악제, 이천 도자기 축제, 강원도 양구의 박수근 미술관, 제주의 이중섭 미술관, 마산의 문신미술관 등 지역색을 앞세운 각종 음악제와 미술관이 서울 등 대도시 문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곳에는 대안이 없는 오리지널리티를 담고 있다는 점다.

통영이 현대음악계의 거목인 윤이상 의 고향이라는 스토리는 대체 불가능하다. 수도권 거주자에게 용평은 대표적인 사계절 휴양지이고 세계적인 여름 음악학교가 열리는 곳은 국내에 용평이 유일하다. 박수근 미술관이나 이중섭 미술관, 문신 미술관도 작가의 고향이고 거주지였다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 행사를 즐기기 위해, 이 미술관에 가기 위해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이 대관령으로, 통영으로, 제주로 움직인다. 서울에 더 훌륭한 공연장이나 미술관이 많지만 그 행사를, 그 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야만 하는 것이다.

요즘 소비자들은 남대문 시장 기념품 상가에도 있는 물건을 속리산이나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 기념품 상가에서 사지 않는다. 서울에서 소비 가능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태어 지방에서 찾지 않는다.

기업이 메세나 활동에 나서서 는 것은 이로 인해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 평판이 높아진다는 측면도 있다. 메세나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높아지는 이유는 문화의 다양성이 풍부해질수록 그것을 누리 는 우리의 삶이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메세나 활동에 나서 는 기업들도 그들의 지원 결과가 성공적이기를 바라고 사회적으로 주목받기를 원한다. 미술관이나 공연 예술 분야에서 리움미술관이나 LG아트센터의 성취를 넘어서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일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클래식 분야에, CJ그룹은 CJ영페 스티벌이나 CJ아지트를 통해 젊은 세대를 위한 문화키움 활동에, LG그룹은 무용 분야에,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은 국악 분야 지원에 특화하며 자사만의 색깔을 내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비슷한 제품'은 이발소 그림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다. 메세나 활동에 나서 는 쪽에서 '이발소 그림'의 후원자로 남는 것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유일무이한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다면 지역적으로 '서울이 아니다' 라는 점은 앞으로 문제가 안될 것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진령 시사저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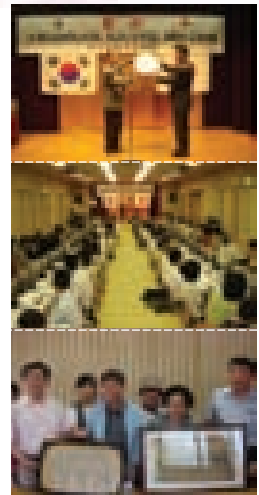
마산문화원, 한일문화교류

마산문화원(원장 임영주)은 지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미노미공민관에서 한일문화교류행사를 가졌다. 이번 교류회는 지난해 일본 측 방문에 따른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금년이 자매결연 19주년으로서 임영주 원장 등 25명이 참가하였다. 방문단 일행은 후쿠야마시를 방문하고 미노미공민관에서 주최한 국제이해교실, 그라운드 골프교류, 문화공연 등 양국 간 문화교류의 확대와 증진에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후쿠야마시는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대조루가 있는 곳으로 한일 양국간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다. 대조루는 조선통신사의 정사, 부사 등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1711년(숙종 37) 정사 조태억이 500명이 통신사를 이끌고 올 당시, 종사관의 신분으로 왔던 이방언(李邦彦)이 남긴 '日東第一形勝'이라는 단아한 필치의 현판이 은 이 절의 자랑이 되어 걸려 있다. 당시의 사절관계 기록이 김현문의 「동사록(東錄)」에 전한다. 그리고 1748년(영조 24) 홍계희(洪啓禧)가 478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왔는데, 정사인 홍계희가 숙소 이름을 대조루라 짓고 그의 아들 홍경해(洪景海)가 현판 글씨를 썼다.

대조루가 있는 후쿠젠지(福禪寺)는 1690년경에 창건되었으며, 오카야마의 혼렌지(本蓮寺), 시즈오카의 세이켄지(淸見寺)와 함께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가사적지다. 다이조로에서 바라보이는 잔잔한 토모노우리는 동서 해류가 만나는 곳이며, 일본에서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세토나िका이의 대표적인 경승지이다.

1990년부터 시작되어 온 본 교류회는 매년 상호교환 방문을 하고 있으며 “한일문화이해교실”을 통하여 한일 양국간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삶꽃과 풍류 그리고 문화원

어느새 20여년이 넘는 일이다. “그것은 노래가 아녀!”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요답사를 한다고 풀나게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닐 때의 일이다. 나는 분명히 논에서, 밭에서 하던 노래를 묻고 있는데 마을 할아버지는 노래를 못한다고 하시는 것이다. 불과 20여년이 지난 이야기이지만 당시만 하여도 가방 하나 덜렁매고 다니던 나의 짓거리가 못마땅하여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분들은 노래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노래라면 의당 유행가나 교과서에 나오는 흔한 말로 피아노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노래를 못한다고 하시는 말이었다. 다른 마을에서 부르던 소리를 흥내를 내어 들려 주면은 나오는 말이 바로 “그것은 노래가 아녀!” 라는 말이다.

그분들에게 노래가 아니라면 무엇이던가. 그것은 일을 하다가 힘이 부쳐 짐승이 하는 소리, 술이 취해 부르던 허튼소리였던 것이다. 그러던 노래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가수처럼 이제 버젓이 많은 사람 앞에서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여전히 노래가 아니다. 이제 그 노래와 함께 있어야 할 “삶의 현장” 이 사라진 것이다. 삶의 현장을 떠나 구경꾼처럼 자기가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고 아쉬워한다. 그래서 이제는 전승을 걱정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불과 20여년이 지난 오늘도 일과 놀이가 함께하던 소리가 문화재로 대접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화는 일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는 일상생활하고는 다른 어떤 배운 사람이 하는 고급스러운 사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하고는 상관없는 즉 일 없는 사람들이 즐기는 호사나 여기일 뿐이다. 그래서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양식”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말을 들은 지도 벌써 얼마가 되었을까 할 정도로 이제는 너무나 자주 들고 있지만 누구도 감동을 받지 않는 말이 되었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모른다. 아니 알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면 바로 문화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또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는 소비가 아니고 생산이고 자원이라고 하던 소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땅과 일과 놀이는 하나이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일꾼들이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문화재가 되어 있는 그 노래는 이제 일노래가 아니라 문화재가 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만 바뀌었을 뿐이다. 물론 이제 우리 경제도 산업화시대를 지나 정보화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 과거 농경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일과 노래가 역동적으로 살아 있는 그 일노래에서 문화와 예술을 다시 생각하지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문화를 다시 회복하지는 것이다. 그 일노래의 세계관을 보자. 땅의 토질이나 기후가 틀리면 반드시 사용하는 농기구가 다르다. 그것은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땅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평야지대나 산악지대 아니면 모래가 많은 땅이나 자갈이 많은 땅과 진흙이 많은 땅에서 사용하여야 할 호미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즉 경험으로 일의 효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그 땅의 조건이 다르면 반드시 부르는 노래도 다르다는 점이다. 그래서 골골마다 노래가 달랐던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같은 마을에서도 논외 생김새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 방식도 달랐던 것은 땅과 일 그리고 노래는 셋이 아니라 하나이고 또 하나이면서 셋이 달랐던 것이다.

모를 심을 때, 논을 맬 때, 그것도 아시매기와 두벌매기할 때 노래가 달랐던 것이다. 그 중심에 일노래의 신명이 있었다. 그 신명이 바로 문화이고 살림 그 자체였던 것이다. 노래를 못하면 일을 잘 할 수 없다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고 또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은 당연히 땅의 성질이나 모양을 잘 알아야 어

설픈 소리를 내지 않고 먼데 사람 듣기 좋고 가깝 사람 보기 좋게 제 소리를 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문화는 기교만이 아니라 감동이고 노는 것이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을 보자. 학교에서나 문화강좌에서 똑같은 현상이다.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 모두 문제가 있으니 이것이 아마도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의 상식인 지도 모른다.

왜 이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렇다보니 가르치는 내용이 획일적이고 관념적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론이나 실기만이 옳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무시하기 일쑤이다. 즉 기교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문화예술이 재미가 없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고상한 사치품처럼 대접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생각을 하여보자. 모래가 많은 땅에서 하는 노래를 배워 자갈이 많은 땅에서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노래와 일이 하나가 아니라 따로 놀게 되어 일의 능률도 없고 재미가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배워야 할 기교는 그것을 창작한 사람과 환경의 산물이라는 것을 모르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지역의 환경이나 역사를 무시하고는 관념적이고 모방일 뿐이며 우리가 가장 혐오하여야 할 비문화적이라는 것이다. 문화는 기교만이 아니라 그 기교가 창출되었던 이유 즉 문화적 배경과 차이 그 자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아무리 잘해도 모방일 뿐이고 모방으로는 감동을 줄 수가 없다.

문화는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이론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인지 모르지만 재미있게 놀고 난 후에 이론이 따르고 다시 그 이론에 따라 다른 차이가 이어지는 역동적인 순환의 관계이다. 마치 날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태양이 매일 다르지만 다른 것을 모르듯 문화는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풍류에는 한과 멋 그리고 살림이 있다

우리 문화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이 풍류이고 흥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풍류는 그저 잘 놀고 잘 쓰는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풍류야말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할

우리 문화의 오래된 미래이다. 한이라면 교과서 배운 한(恨)을 먼저 떠올린다. 그게 아니다. “한”은 앞에서 이야기한 일과 노래 그리고 자연이 하나가 되면서 동시에 셋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한다. 가장 작으면서 가장 큰 그런 하나인 것이다. 셋 중에서 하나만 틀려도 다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이다. 그렇다고 그 다른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 다른 무엇이 있어 새로운 무엇이 창출되는 그런 다름인 것이다.

그렇다면 멋은 무엇인가. 날마다 새롭고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제대로 된 멋이다. 소리꾼들이 자기 스승을 그대로 따른다면 잘 한다고 할 수 없다.

자기만의 개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스승의 품격을 따라야 진짜 명창이 될 수 있듯이 말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기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높은 땅은 낮게 하고 낮은 땅은 높이 하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내가 남에게 무슨 시혜를 베풀 듯이 하는 그런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베풀지 않으면 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살림이다. 마치 어떤 꽃이 어느 지역에서 사라지면 그 꽃에 의지하던 나비도 사라지듯 꽃이 살기 위하여는 나비도 살려야 하고 나비가 살기 위하여는 꽃도 살려야 하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가 바로 우리의 풍류의 세계관이다.

문화원은 바로 풍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잘 알다시피 문화원은 전국 고을마다 자리하고 있다. 즉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풍류의 정신이 깃든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적합한 문화단체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하나뿐인 그 무엇을 대하여 얼마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였는지 평가를 하여본 적이 있는가.

우리 문화원 역시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문화는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즉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무엇 바로 꿈이어야 한다. 문화는 꿈 그 자체이다. 이미 있는 것은 관념이고 개념이지만 아직 없지만 있어야 할 것은 살아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감동인 것이다. 이것이 문화이고 풍류이고 흥이다.

이미 있는 것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 있는 무엇으로 창출하지 않으면 곧 그것은 죽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재미가 없는 것이고 감동도 없는 것이다. 문화원의 할 일은 바로 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풍류의 바람을 일으키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기 위하여는 이제 다른 문화기관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일이 되고 놀이가 되는 그런 역동적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업이 서로 연결되는 관계망을 구축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각 문화원에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여러 문화동아리와 향토문화연구소가 있어 이제 하드는 구축되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세계 또는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즉 이미 있는 것에 안주하는 그런 문화원이 아니라 작지만 우리 지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풍류의 감동을 기대하여 본다.



안용산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사 람

책
간직하는 사람
안정웅

冊

지난 8월31일까지 안양석수도서관에서 열린 안정웅 씨의 전시





환한 미소의 안정웅 씨

한때 취미를 적는 란에 '독서' 라는 글자가 태연하게 자리를 차지하던 시절이 있었다. 마땅한 취미가 생각나지 않아 대충 적어둔 사람들도 없지 않았지만 보통 즐길 것이라 고는 책이 유일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렇게 책은 우리의 삶과 가까웠고 자주 거론되었다. 컴퓨터와 각종 게임이 아이들에 손에 쥐어져 종이로 된 책은 점점 사람들에게서 멀어진 지금, 정말로 책의 마지막이 있다면 그곳에서 있을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안정웅일 것이다. 그의 수집의 연재를 앞두고 간단한 인터뷰를 했다.

도서관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사람들이 오고 그 곁으로 태연하게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다. 마치 그곳에 원래부터 있었던 듯이. 문득 지나치려다가 못내 발길을 잡는다. 이쪽도 삼국지, 저쪽도 삼국지다. 판본과 출판사별로 다양한 삼국지가 도서관 1층을 점령한 셈. 이곳은 안정웅 씨의 개인소유인 160여점의 삼국지가 전시되어 있는 곳이다.

“취미 삼아 시작했어요. 1972년부터 모으기 시작했으니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책과 별 관계 없는 일을 했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지요. 당시 문학잡지들을 접하면서 번뜩 창간호에 관심이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관심은 안양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헌책방을 다 섭렵할 정도였다. 책이 있다면 두메산골도 마다하지 않은 그였다. “그때는 헌책방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도시엔 헌책방 하나가 없는 곳도 있어요. 참 많이 없어졌어요. 서울만 해도 청계천에서 발품을 팔아가면서 많은 책을 접하곤 했는데 이제 다 추억이 됐어요. 복원사업을 해서 헌책방이 많이 지취를 감추었죠.” 쉬는 날이면 헌책방에서 책의 냄새로 기운을 얻던 그였으니 요즘의 풍경이 좋을 수만은 없다. “요즘에는 컴퓨터가 워낙에 많고 대중화되어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틈이 없죠. 우리 아이들이 그랬지만 책을 보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문화가 있고,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문화가 있으니까요. 제가 책을 보고 모으는 일을 즐겼던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문화를 즐기고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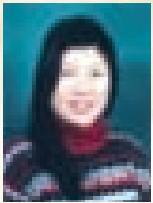
본인과 같음을 강요하지 않으며 다른 풍경에서도 다만 열정만을 꿈꾸는 그다. 5만여 권에 이르는 책으로 아내와 적지 않은 다툼도 있었다지만 그마저도 유쾌하게 웃는 안정웅 씨. 그의 보물보따리를 훑쳐볼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린다. 그의 품안에는 책과 사람과 열정이 깊숙한 곳에 간직되어 있다.



들여다 보기

지역사회와 박물관 미술관

이 칼럼에서 미술관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박물관 정의에 따라 박물관이라는 용어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박윤옥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외래교수

이제 우리의 박물관은 더 이상 단체로 줄지어 들어갔다, 십 분 만에 우르르 몰려나오는 지경고 다리만 아픈 지난날 수학여행의 단골 코스가 아니다. 박물관은 인류의 삶과 함께 오랜 역사 속에서 서서히 발달해 왔지만, 특히 지난 20세기 후반부터는 놀라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전시를 재미있게 구성하고, 설명문을 쉽게 쓰는 일로부터 관람객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편의시설 제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는 박물관이 속한 사회에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박물관이 디즈니랜드와 같은 놀이공원, 또는 롯데월드와 같은 거대 쇼핑몰과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자구책에서 나온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중요한 점은 박물관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그들의 이용자인 관람객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관람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등에 관심을 갖고 관람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즉, 이 시대가 박물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박물관은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960년대부터 사회구조에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으며,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박물관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박물관의 전통적인 역할은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한다. 박물관이 더 이상 통치자 계급의 역사와 문화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에게 가려지고 무시되었던 보통사람들의 삶을 들여다 보게 된다.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들이 생겨나고, 지역사회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이로써 대부분 지역박물관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와 보다 가까워지고 공동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에 상응하여 지역주민들과 관람객들은 박물관에 대해 보다 나은 이해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물건들이 박물관의 유물로 자리잡으면서 비롯된 한 가지 변화는 관람객의 구성에 있다. 전통적으로 박물관의 관람객은 주로 교육을 받은 중산계층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예를 들면, 영국 뉴카슬 디스커버리 박물관(Newcastle Discovery Museum)에는 전에는 박물관에 발걸음도 하지 않던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이 찾아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박물관이 뉴카슬이라는 도시를 형성한 노동자들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가능하게 된 일이다. 결국 이 도시의 역사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친척들과 친구들

디스커버리박물관의 지역사 전시실 'Great City'
(현재는 'Working Lives' 로 개조됨)



을 데리고 박물관을 찾아와 전시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된 것이다. 많은 지역주민들은 이런 자런 모습으로 전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박물관은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뿌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박물관 경험이 관람객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역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변화가 박물관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박물관은 전에는 전시에서 보여준 일이 없는 그러한 역사와 문화를 표현하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과정에 지역사회의 역사가 삽입되면서 지역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가 늘고 있다는 것은 박물관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문제는 박물관이 이에 잘 대처해야 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부모, 학교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전시와 활동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박물관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들의 짜임새 있는 박물관 견학계획과 박물관과의 협조도 부족한 편이다. 물론 많은 박물관이 처해 있는 여러 자원의 부족도 이해할 수 있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갯벌체험, 생태계 체험 등 체험학습으로 몰리는 현상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세계의 많은 박물관들은 학교의 교과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학습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학습이 지역박물관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면 보다 충실하고 학습과 연계된 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밀시티박물관(Mill City Museum)의 밀방앗간 체험
(<http://www.npr.org/templates/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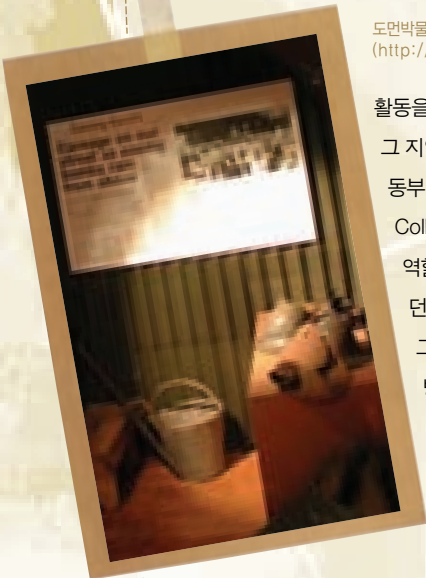
박물관이 해볼 만한 또 하나의 시도는 지역 도서관과의 공조이다. 역사적으로 박물관은 도서관과 함께 지식의 보고로 여겨져 서양에서는 박물관과 도서관이 한 건물에 공존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대영도서관은 1997년 따로 건물을 지어 나갈 때까지 대영박물관 내에 속해 있었다. 지역박물관이 학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로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연장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도서관에서 얻은 지식을 박물관에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아쉽게도 학교, 박물관, 도서관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가능할 것이다. 한편 박물관은 지역의 노인들을 '살아있는 역사'로 활용하는 일에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이 임시주주로 되다 보니 주말이나 휴일의 가족활동까지도 아이들의 학교교육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작 부모 자신들의 문화적인 욕구나 자신들이 은퇴하고 나서는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뒷전인 경우가 많다. 은퇴는 빨리지고 평균수명은 길어지는 오늘날 부모세대를 위한 박물관의 활동은 적극적

으로 장려할만하다. 이미 여러 박물관에서 실행하고 있듯이, 지역주민 개개인들이 귀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일은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더욱이 그 물건들에 얽혀있는 이야기들을 곁들인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영국 미들스버러에 있는 도먼박물관(Dorman Museum)은 지역주민들을 전시에 참여시키는 일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회상의 도구(Reminiscence Kit) 라는 회상작업을 기획하여, 조그만 상자에 과거의 물건을 넣어 가지고 공동체를 방문하여 나이든 어른들로부터 물건에 얽힌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작업이다. 똑같은 물건에 대해 개인마다 각기 다른 경험과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공동의 기억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공동체의 노인 세대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성공적인 박물관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전시장에 빈 공간과 빈 진열장을 두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헌신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몇 년 전에도 “All Clear” 라는 기획전시를 하면서 제2차세계대전 중의 주민들의 경험담을 수집해 함께 전시하곤 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생생한 역사 공부는 물론이요, 관람객이 알 수도 있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듣는 일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된다.



도먼박물관의 'All Clear' 전시
(<http://www.dormanmuseum.co.uk/stories/index.htm>)

활동을 통해서 강의 듣고 배우는 것을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박물관은 그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의무도 함께 있다. 예를 들어서, 영국 북동부 지역 애싱턴이라는 마을에 있는 우드혼탄광박물관(Woodhorn Colliery Museum)은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전승해 나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탄광지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석탄만 캐고 살았던 것은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 축구라든가 비둘기 경주, 채소 기르기, 음악 밴드, 방직 공예 등 공동체 활동을 만들고 그것을 전통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제 그들의 공동체 활동은 박물관을 통해 문화자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6.25 음식 먹어보기 행사가 열리고 하는 것처럼, 이 박물관에서는 어려웠던 시절 혹은 전쟁 시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채소를 심어보고 그 씨를 나누어

주는 행사를 열기도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그림동화회의의 작품들을 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전시하기도 한다. 박물관이라고 해서 어려운 역사, 고고학, 미술 등 학문적인 영역만을 보고 배우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던 일을 배우고 문화로 승화시키는 일은 박물관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며, 결국 지역주민들을 박물관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손쉬운 길이 될 수 있다.

즉, 박물관이 지역주민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와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으며, 박물관을 오며 가며 쉽게 드나들 수



영국 우드혼탄광박물관의 전통공예교실 및 애싱턴 그룹 페인팅
 (<http://www.experiencewoodhorn.com/timetable.pdf>)

있는 마을회관과 같이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면서 지역마다 자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지역을 매력적인 장소로 개발해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다양한 축제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축제가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이상적인 것이다.

요즘 유행하듯이 지역을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으로 제공하여 단시일에 커다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에 근거한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를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 현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획일화된 모습이나 상품이 아니라, 그곳에 가만만 맞볼 수 있는 이유 있는 문화체험이다.

지역 박물관은 해당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찾아내는 일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위상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들여다 보기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사례

1. 에코뮤지엄(Eco-Museum)의 형성과 개념

에코뮤지엄의 기원이 되는 야외박물관(Open Air Museum)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관한 것은 스톡홀름에 있는 스칸센(Skanssen)으로 1891년의 일이다. 스칸센을 창설한 아더 하젤리우스(Artur Hazelius)는 19세기 후반의 공업 발달 등으로 문화유산인 옛 건물이나 전통적인 생활용구 등이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 1872년부터 옛 가구와 의류 등 물질문화를 수집·보존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1878년의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전통적인 복장이나 농가의 실내 등을 전시했는데, 이를 계기로 하여 민가의 원형을 그대로 옮겨와 전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80년에 준비가 본격화하여 1891년 개관한다.¹⁾

야외박물관 개념에 기초한 에코뮤지엄은 1960년대 프랑스에서 지역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지방문화의 재확인'이라는 이념에 의거하여 농촌 지역에 설치된 자연공원의 문화시책으로 탄생하였다. 이 때 스칸센 야외박물관 개념을 프랑스의 상황에 적용시킨 사람이 인류박물관의 조지 앙리 리비에르(George Henri Rivière)였다. 이들이 스칸센과 다른 점은 가족들을 인공적인 장소에 이전시키지 않고 그 유적지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에코뮤지엄이라는 명칭은 1971년 위그 드 바랭(Hugues de Varine)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생태학과 박물관의 합성어로 탄생한 것으로서, 'Eco'라는 말은 Ecology(생태학)와 Economy(경제)의 어원으로 '집'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를 의미하고 있다. 에코뮤지엄이라는 개념이 탄생되었을 때에는 스웨덴의 스칸센 야외박물관에서 시작한 생활사(生活史) 복원 운동인 전시수법을 이용하여 생활 전체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집의 박물관'이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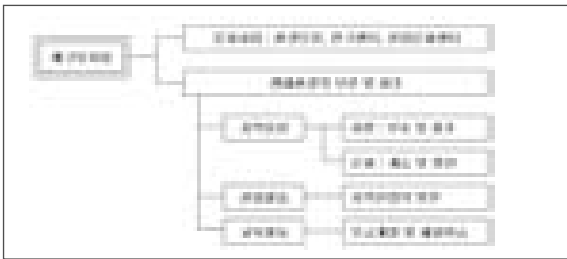
이 개념은 더욱 확장되어 환경과 조화되고 환경에 대한 역할을 달성한다는 뜻에서 확장된 의미의 박물관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서의 환경은 광의의 개념으로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한 지역안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유·무형의 지역유산, 산업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3) 드 바랭은 전통적인 박물관과 에코뮤지엄과의 차이점에 근거하여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다음 표와 같이 비교 정의하였다.

전통적 박물관과 에코뮤지엄의 비교

	전통적 박물관	에코뮤지엄
전 시 장 소	건물 (building)	영역 (territory)
전 시 유 물	소장품 (collections)	유산 (heritage)
전 시 대 상	대중 (public)	지역인구 (population)

현대적 개념의 에코뮤지엄 정의는 앙리 리비에르에 의해 시도된 진화하는 개념의 정의로 오늘날 전 세계의 학자들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1980년에 국제박물관회의(ICOM)에서 발표된 리비에르에 의해 작성된 '에코뮤지엄의 발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에코뮤지엄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구상하고 구체화하여 활용하는 수단이다. 에코뮤지엄은 한 장의 거울이다. 주민은 자신을 인식하기 위해 그 거울에 스스로의 모습을 반영해낸다. 에코뮤지엄은 인간과 자연의 표현이다. 인간은 그 환경 안에서 해석된다. 게다가 시간과 공간이 박물관이라는 개념을 갖고 연구소, 보존기관, 학교 등의 기능을 갖는다." 4)



에코뮤지엄의 역할

* 출처 | 권사빈, 2004,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에코박물관(Ecomuseum) 개념의 적용 강화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이러한 앙리 리비에르의 혁신적인 정의의 핵심은 유산이 단순히 유물의 가치를 넘어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며 만들어가는 것으로 지역 유산의 형성에 중요한 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으로, 에코뮤지엄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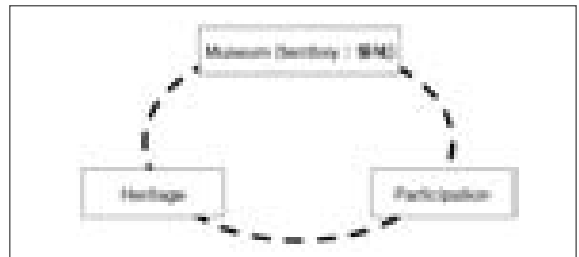
2. 에코뮤지엄의 특성

드 바랭은 박물관과 에코뮤지엄을 세 가지 면에서 그 차이점을 구분하고 있다. 건물(building) 대 영역(territory), 소장품(collections) 대 유산(heritage), 대중(public) 대 지역인구(population).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에코뮤지엄은 방문객이라는 대중을 위한 건물 내의 수집품으로 특징지어지는 전통적인 박물관과는 상반된 기관으로, 지역 발달의 자원으로서 공동 유산을 이용하는 특정 지역의 지역공동체로 확인되는 문화과정이라고 묘사될 수 있다.

이들 에코뮤지엄은 하나의 문화권 전체를 영역으로 하여 주민참여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마다 제각각의 제력이나 능력을 제공하면서 협력하여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의미가 있다. 에코뮤지엄의 업무는 지역단체, 공공기관, 합동조합, 협회, 재단이 관할하며, 운영조직으로는 관리·운영위원회, 학술위원회, 이용자(사용권자)위원회 등이 있다. 이러한 에코박물관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대상이 갖는 특징으로 일정한 영역(Territory), 즉 특정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법적인 면에서는 지역사회·주민들과의 일체화를 꾀하고 주민의 주체적인 참가(Participation)에 의해 이루어지며 관리·운영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산업유산 등을 현지에서 보존하는 특수성, 즉 유산의 현지보존(Heritage)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합시킨 박물관 활동을 에코뮤지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상적인 에코뮤지엄의 모습은 이 특징들이 균형있게 갖추어져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된다.



에코뮤지엄의 특요소

이와 같은 에코뮤지엄에 비교할 만한 활동들은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역의 생태자원, 문화·산업자원을 보존하기도 하고 지역환경교육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활동으로는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6), 시빅 트러스트, BTCV, 그라운드워크 트러스트, 독일의 크라이그 가르텐, 비오톱, 근(近)자연하천공법, 바우비오로기(건축생물학), 미국의 어린이뮤지엄, 각종 환경 교육수법이나 제도, 오스트레일리아의 파마 컬처(Farmer Culture), 유럽 각국의 그린투어리즘(greentourism),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에코투어리즘(ecotourism)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국내외 에코뮤지엄의 사례

1) 지역문화유산 보존 : "영암구림마을"

행정구역상 영암군 군서면에 위치한 영암구림마을은 삼한시대부터 2,200년의 오랜 전통을 지닌 자연마을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규모가 으뜸이라 할 수 있으며, 많은 역사적 설화와 인물을 배출한 자연 그대로의 문화관광자원이 많은 아름다운 마을이다.

마을 내에는 유형문화자원인 회사정, 국암사, 담숙제 등 12개의 누정과 전통가옥, 돌담, 고목나무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 매년 올리는 당산제와 구림 대동계 등 민속문화



자원이 전승되고 있다.

1999년, 영암군과 이화여대 박물관은 폐교를 영암 도기문화센터로 개조하여 문을 열었다. 이화여대박물관은 1987년 이 일대 가마터 유적지를 발굴한 인연을 계기로 군과 구림리 도기가마터 유적의 합리적인 보존대책을 논의하다가 단순히 문화유적을 현장보존만 하기보다는 문화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구림도기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작은 전시관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도기문화센터에서는 황토를 재료로 하여 12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구림도기를 한국적인 정서가 깃든 영암도기로 재현하고 있으며, 방문자들은 직접 흙 밟기 체험과 떡메를 쳐서 흙을 다져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물레를 돌려볼 수도 있다. 도기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주민들은 전시행사 참여하고, 이곳 유림단체들은 직접 마을 안내를 해주고 있다.

마을 내에는 96개 민박집이 형성되어 있으며, 민박집들은 지역의 역사성 보존을 위하여 지붕만이라도 한옥으로 개조하고 있다. 왕인촌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종이공예, DIY, 전통혼례, 떡메치기, 짚풀공예, 물고기잡기, 물놀이, 고무마구워먹기, 스토리텔링등)을 제공하고 있다.

도기문화센터 이후 이어진 다음 단계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마을과 전통이 살아 있는 구림마을 전체를 생태민속마을, 즉 에코뮤지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곳은 최근 전통 선비촌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마을로 탈바꿈 하고 있다.

구림마을이 전통마을로 거듭나는 데는 재산권 제약을 감수한 주민들의 노력이 뒤따랐으나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구림마을을 보존하기 위해, 이곳 주민들은 스스로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의 신축과 개축을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라고 한다.⁷⁾

2) 산업유산의 활용 : “철암 빌리지움”

최근 사양산업이 된 광업 지역의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그 지역을 관광지화 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민간주도로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에코뮤지엄 개념의 도입이 시도되었다.

강원도 태백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탄광도시다. 1920년대 일제시대 때부터 탄광이 개발되면서 형성된 도시는 1970년대 유희파동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팽창되었으나, 1989년도부터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시작되면서 폐광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3개의 탄광만이 남고 모든 탄광이 폐광되었으며 인구도 급감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도시전체가 공동화현상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 자본논리에 우선한 지역개발이 아닌 생활의 논리를 우선으로 한 주민주체의 개별방식이 제안된다. 원기준 목사는 1991년 광산지역사회연구소를 설립하고 태백시의 주민운동을 통한 지역개발을 에코뮤지엄의 개념 구현을 통해 구상하였다.

2001년 2월, 10명의 젊은 건축가들이 주축이 되어 강원도 태백의 철암지역을 살리기 위한 ‘철암지역 건축도시작업팀’을 구성하였다. 그들은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인간과 환경을 종합적인 관계로 보는 학문적 영역이라 판단하였고 철암지역이 인문지리적, 경제 사회적 기반이 거의 와해되어 에코뮤지엄의 중요 구성요건인 주민참여 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에코뮤지엄과는 변별되는 개념인 빌리지움(Villageum)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였다.

빌리지움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는 에코뮤지엄의 이상에 동의하면서도, 철암이 가지는 여러가지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하여 에코뮤지엄이 가지고 있는 박물관적 이미지(환경이나 생태, 학교로서의 기능) 보다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서의 이미지를 중시함으로써, 빌리지(village)에 해당하는 환경의 문제로 관심의 무게를 옮겨서 철암의 현실에 더 가까이 서고자하는 개념이다.

철암팀은 빌리지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석탄 관련시설의 재활용, 철암다운 경관의 보존(주택과 상가 등), 도시경관의 특화와 철암천의 정비, 생태복원, 산림문화전시관 설치, 새로운 건축문화유산 만들기 등 자연과 함께하는 여러 활동들과 함께 철암고등학교를 대안학교로 만들어 미술과 공예분야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안과 그를 토대로 한 수공예의 진흥이라는 대체산업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예술가 주거 프로그램과 비전문가를 위한 미술체험 관광프로그램, 지역축제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철암 빌리지움 계획은 주민들이 모두 떠나버린 후에 너무 늦게 계획이 이루어지고, 2003년 홍수로 인해 철암천 주변의 주택들 대부분이 파손되어 실현되지 못한 채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계획 사례로만 남아 있다.

3) 자연유산의 보존과 교육 : "일본 황새에코뮤지엄"

일본 호고현 북부 但馬, 豊岡은 일본 최대의 야생 황새 서식지이다. 이 豊岡분지는 해발 1~2m의 저습지로 수량이 풍부한 하천이 흐르고, 곳곳에 호수가 남아있어 물가에서 생활하는 황새가 먹이를 구하기에 알맞고, 주변의 낮은 산에 큰 나무가 많아 동지를 틀고 살기에도 용이하여 황새가 많이 정착하였다.

그러나 전후 황새가 급격히 감소하여 1965년에는 일본에서 유일한 황새 보호증식센터가 豊岡시에 개설되었으며, 인간과 황새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공생 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황새 야생복귀사업'이 착수되었다. 황새 에코뮤지엄은 이 야생복귀사업에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여 황새를 심벌로 자연과 인간의 생활을 살피 풍부한 생활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생성되었다.

황새 에코뮤지엄의 활동은 '황새거리 · 마을 만들기'를 기본으로 삼고, '황새보호증식사업'과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사회 만들기'가 일체되어 황새의 보호와 더불어 주민에게 보급, 개발됨으로써 지역 진흥에 연계한 다양한 사업에서 전개되고 있다.

황새살을 비롯한 황새 상품 등 황새 브랜드의 개발, 판매, 황새를 소재로 한 노래 수집 등 황새에 관한 사상의 발굴 · 개발이 주민이 참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황새 시민연구소가 열려 황새가 서식하면 보이는 송사리 등의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며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는 회원들이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유타오카시 교육위원회와 민간 자원봉사자의 협동으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황새의 생식환경과 인간의 생활환경, 지역유산과 산업, 교육 등 사회생활 전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히 주민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유타오카시가 2000년에 개관한 「황새문화관」은 에코뮤지엄의 핵심 시설으로써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정보제공, 전시,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곳은 황새의 생태부터 황새 에코뮤지엄의 소개, 주민의 활동 거점으로써 이용된다.

황새 에코뮤지엄은 황새가 다시 돌아오면 사회가 어떻게, 어떤 환경으로 될것인가를 고찰함으로써 과거를 알게 됨과 동시에 미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또한 주변 생물의 조사는 인간의 생활을 다시 보게하는 동기가 되었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환경의 변화를 증명한 제안이 되었다.

1) 권사빈, 2004,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에코박물관(Ecomuseum) 개념의 적용 - 강화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8쪽

2) 오오하라 카즈오키, 「에코뮤지엄(Ecomuseum)으로의 여행」, 수원: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2006, p.8.

3) 정수환, 2005, 「에코뮤지엄을 통한 지역 활성화 계획 - 태백시 철암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p.10.

4) 전홍규, 1998.12,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개발운동」, 도시와 빈곤(35호), 한국도시연구소, p.3.

5) 신현오, 「에코뮤지엄의 발전과정과 개념적 특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 대학원, 2006, pp.8-9.

6) 트러스트란 1957년 영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도시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목표로 한 전국조직으로서 설립되었다. 이를 창설한 사람은 후에 경(卿)의 칭호를 받게 된 외교관 출신 주택지방정부장관 단칸 산즈였다.

단칸 산즈는 각지의 지역주민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진행해가는 주민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각지의 환경보전 · 개선을 위한 주민운동단체의 네트워크가 영국 전역에 확장될 것을 기대하였다. 따라서 트러스트는 이들의 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기성 활동단체에 대해서는 정보서비스나 운동의 아이디어 제시 등의 후원활동을 하였다.

7) 김복희, "개발보다 아름다운 보존 : 에코뮤지움 영암군", 「월간너울」, Vol 174호, 2005.12.



황동열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교수

들여다 보기

아무개씨,
미술관에 차
마시러 가다



GALLERY CHA

GALLERY CHA & SSE PROJECT

TROUBLEMAKER!

2009

Part 1: Aug 22 - August 31, 2009
10:00AM - 5:00PM, 10:00AM - 12:00PM, 12:00PM - 5:00PM
Part 2: August 31 - Oct 1, 2009
11:00AM - 5:00PM, 10:00AM - 12:00PM, 12:00PM - 5: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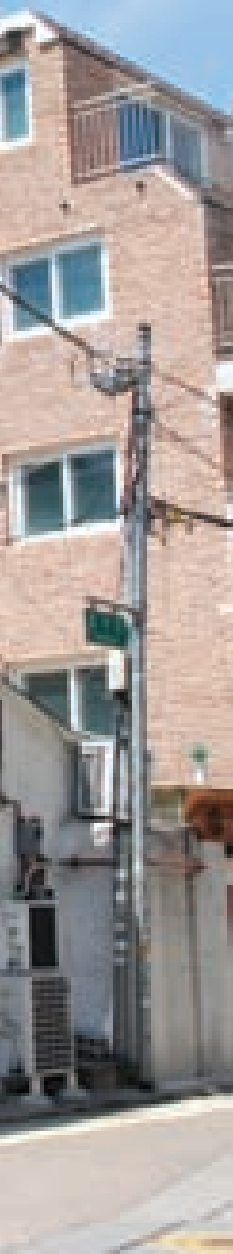
GALLERY C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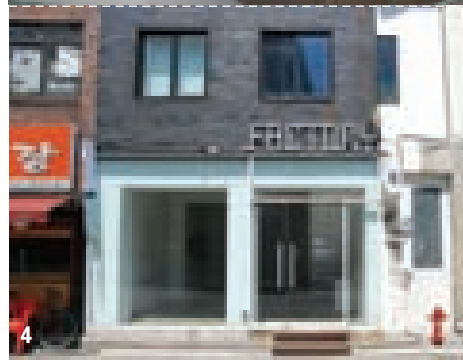




미술관 미술관



3



4

초등학교 때 도서관이나 미술관에 가는 건 고궁견학 포함하여 연례행사였다. 날 잡고, 메모지 준비하여 마음먹고 가는 특별한 하루 일정이었던 셈. 그런데다 다녀오면 견학일기는 필수. 그것이 아주 나쁘지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좋은 그림들, 문화재들이 속제로 다가와 두려웠던 건 아무개 씨만 이 아닐 것이다.

맑은 날이다. 맑고 덥고 따가운 날이다. 휴가 하루 써보지 못하고 이 여름을 또 보낼 수밖에 없는 아무개 씨, 겨우 짬을 내 하루를 쉴 수 있게 되었다. 단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어딜 가자니 번거로워 그저 동네 산보로 마음을 달랠 심산이다. 동네 토박이지만 골목골목 숨은 공간에 발길 닿는 대로 걷는 건 아무개 씨의 이번 여름휴가 방법이다.

든든히 밥을 먹고 동네를 걸다가 눈에 띄는 찻집에 들어간다. 의자에 앉아 차가 나올 동안 그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벽마다 자연스럽게 걸린 한 미술가의 수채화 덕분이다. 이곳은 오르세도, 풍피두도 아니지만 줄도 서지 않고 표도 사지 않고 차를 훌쩍대며 느긋하게 작품을 볼 수 있다. 그건 세계 어느 도시의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주지 못하는 즐거움이다.

차로 목을 축이고 살살이 내부의 작품을 감상한 다음 또 골목탐험을 떠나는 아무개 씨. 이번에는 골목 한켠에 빨간 건물이다. 걷고 싶은 마음에 지나치지만 건물의 위트에 함께 웃어본다.

곧 발길이 닿은 곳은 길가에 위치한 헌책방. 평소에는 퇴근이 늦어 잘 가보지 못했는데 여유롭게 헌책방에 입성하는 아무개 씨다. 이곳은 어릴 때 가던 그런 헌책방과는 다르다. 밝고 깨끗하고 냄새도 없다. 예전의



헌책방이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다면 이곳도 새로운 맛이 있다. 선반에는 젊은 작가들의 재치 있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물론 구매도 가능하다. 한 작가가 만든 흑백의 새 프린트 무늬 쿠션을 하나 집는다. 편하게 쓰기 좋은 공책도 함께.

얼마쯤 걸었을까,

시원하게 통유리로 내부가 공개된 갤러리를 지나친다.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내부를 볼 수 있어 한눈에 작품을 보고 지나친다.

아무개 씨의 관람법은 때마다 다르다. 어느 작품은 오랜 동안 들여다보고 메모하기도 하지만 어떤 건 휘리릭 지나쳐 간다. 그냥 지나친다고 해서 그것에 소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어릴 적 숙제 때문에 억지로 적으며 빼앗겼던 감상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다.

부쩍 서울의 이 동네에는 갤러리가 많이 생겼다. 거칠게 말해 미술과 대중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얘기도 하다. 이 짧은 시간에 감상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으니.

한두 시간 동네를 걸었을 뿐인데 참 많은 것을 보았다. 그리고 보니 아차, 입추 지난 가을벌에 까맣게 탔군! 이쯤이면 친절하게 문화기행도, 피서의 상징 같은 검은 피부도 얻은 셈이니 바쁜 이 휴가시즌이 아쉽지만은 앓다고 생각하는 아무개 씨다.



1. 지나치며 그냥 슬쩍 쳐다만 봐도 오늘 이 갤러리의 손님이 된다
2. 3. 골목마다 태연하게 자리 잡은 갤러리
4. 식당 옆 갤러리
5. 주차장 뒤로 건물에는 물에 거꾸로 처박힌 듯한 초록다리만 보이는 사람이 눈에 띈다.
6. 골목마다 태연하게 자리 잡은 갤러리
8. 담벼락도 훌륭한 전시공간이다
7. 예쁘기로 더 소문난 대림미술관

연합회 소식

지역문화경영과정



2009 지역문화경영과정이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간 대전(한국토지공사)에서 있었다. 문화원 종사자들에게 지역의 문화매개자로서의 육성을 목표로 연합회는 문화원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관리의 필요를 갖고, 이에 맞는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교육방법 및 교육수요 등을 사전 조사, 적절한 과목구성과 강사섭외를 통하여, 매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종합평가, 향후 교육방향 결정해나가고 있다. 전문적인 문화마인드 확립과 문화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및 교재를 개발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문화경영과정을 통해 문화원 종사자들의 총체적인 경영 리더십 향상과 문화원 인력개선으로 지방문화원의 경쟁력 강화, 지방문화원 활성화를 기대하며 교육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진 확보로 지방문화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1. 초급과정 개요

지역문화경영과정 초급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총 10개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고, 분임토의에 참가해 토론과 발표를 해야 하며, 그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초급과정은 문화일반, 실무교육, 분임토의 및 종합발표 등 총 35시간이다.

〈표 1〉 교과과목 및 강사진

교과목	시수	강사	소속
지역문화 CEO론 (개강특강)	1.5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문화유산관리론	2.5	최종호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프로그램 운영사례연구	2.5	심오섭	강릉문화원 사무국장
*문화기획론	3.5	이종인	문화행정연구소 소장
제도와 법규	2.0	지기룡	변호사 (해마루 법무법인)
문화체험①	1.0		
*문화정책론	2.0	이홍재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지역과 실버문화	3.0	이금룡	상명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문화정보 활용실무	3.0	이호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홍보부장
문화체험②	1.0		
*지역문화해설방법	3.0	서순복	조선대학교 법대 교수 한국문화관광해설사회장
분임토론 종합발표	3.0	신동호	리서치 21 대표

〈표 2〉 분임토론 주제 및 컨설턴트

	토론주제	시수	컨설턴트	소속
분임토론 ①②	생활문화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6	송기동	김천문화원 사무국장
	지방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 개발	6	김영자	대전중구문화원 과장
	실버문화프로그램 개발	6	송기동	김천문화원 사무국장
분임토론 ③		3		분임별 자체정리

2. 중급과정 개요

지역문화경영과정 중급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총 10개 과목의 심화교육을 수강하고, 분임토의에 참가해 토론과 발표를 해야 하며, 그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중급과정은 심화교육 및 과목별 세미나, 분임토의 및 종합발표 등 총 35시간이다.

〈표1〉 교과과목 및 강사진

교과목	시수	강사	소속
지역문화 CEO론 (개강특강)	1.5	최종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문화예술교육 세미나	2.5	박상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기획실장
*지역문화경영론	2.5	이홍재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축제기획과 평가	3.0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문화재원 개발론	2.0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
문화체험①	1.0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2.0	박덕규	단국대학교 문창과 교수
프로그램 운영사례연구2	3.0	이걸재	공주시청 공무원
다문화 프로그램기획	3.0	신동호	인문사회연구소장, 리서치 21 대표
문화체험②	1.0		
*미디어홍보 세미나	3.0	임연철	국립극장 극장장
분임토론 종합발표	3.0	신동호	리서치 21 대표

〈표2〉 분임토론 주제 및 컨설턴트

	토론주제	시수	컨설턴트	소속
분임토론 ①②	지방문화원과 지역문화재단 체와의 네트워크구축방안	6	이종인	문화행정연구소 소장
	지방문화원의 재원확충 방안	6	이홍재	전주정보영상진흥원장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
	지역문화자원 발굴과 브랜드화	6	박덕규	단국대학교 문창과 교수
분임토론 ③		3		분임별 자체정리

※ 컨설턴트는 2008년 중급과정 우수수료생

연합회 소식

제1회 나이없는 날, “나이를 벗고 문화를 입는다.”

젊음의 거리 흥대앞!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가 접수한다.



세계 최초 “제1회 나이없는 날”을 선언한다.

▶ 매년 9월 22일은 “차없는 날”이다. 프랑스 라로셰에서 처음 시작된 이 날은 현재 전 세계 140여개 도시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날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선언한 ‘나이없는 날’을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참여하는 문화캠페인으로 발전시켜 지구촌 곳곳에서 모든 사람이 9월 9일 단 하루만이라도 허물없이 문화를 나누고 즐기는 날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나이를 벗고 문화를 입는다”

▶ 노인들의 창조적 여가, 생산적이고 활기찬 세대소통의 프로그램 「2009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사업의 일환인 “제1회 나이없는 날”에 모두가 시작부터 들썩이고 있는 듯 하다.

▶ 2006-2008년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개최됐던 “실버문화축제”가 노인들의 문화적 번신과 제2의 삶을 향한 생산적인 노인문화축제를 보여줬다면, 이번 9월 9일에 개최되는 <제1회 나이없는 날-“나이를 벗고 문화를 입자”>에서는 젊은이와 어르신이 나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간적, 시간적, 관계적 고정관념을 벗고 함께 어우러져 문화를 입고, 먹고, 즐기는 신 개념의 문화축제로 새롭게 벌어질 예정이다.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만드는 문화축제인 <제1회 나이없는 날>에서는 나이라는 장벽을 넘어 모두가 문화를 통해 마음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날이 될 것이다.



행사 개요

행사명 제1회 나이 없는 날
 슬로건 나이를 벗고 문화를 입자
 행사일시 2009년 9월 9일, 14:00-20:00

행사장소 흥대 앞 일대, 걷고 싶은 거리, 대안공간, 라이브 클럽, 댄스클럽, 이색카페 등
 주최 한국문화원연합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프로그램 일정 (안)

시간	특별행사	문화탐방	지혜의 장	화합의 장	전수의 장	거리 예술제			
11:00-14:00	변신타입 (지혜의 장)								
13:00-13:30	개막식								
14:30-15:00	나이 없는 퍼레이드								
14:00-15:00	어르신 연극제	이색카페 대안공간 투어	어르신 예술시장 및 예술전시	어르신 콘서트	사군자 그라피티	나이 없는 한가락 어울림	문화 전수	나이없는 마을 사진전	나이없는 콘서트
15:00-16:00		열정 노래방							
16:00-17:00									
17:00-18:00	저녁 식사 및 자유 시간								
18:00-19:00	나이없는 이색 퍼레이드	나도 인디 예술가			나이없는 노래자랑				
19:00-20:00					나이없는 밴드경연				
18:00-20:00	나이 없는 댄스파티								

※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KBS를 통한,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 학교 통합 홍보

KBS 언제나 청춘

〈청춘 사랑방〉

으랏차차! 전통을 계승하는 어르신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사업 통합 홍보계획의 일환으로 'KBS 언제나 청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어르신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선보였다. 진행자, 패널의 어깨를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담양문화원 어르신들의 농요를 시작으로 조개껍질로 제작된 통영문화원의 연꽃, 새우, 보석함 등의 나전칠기 작품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날 토크쇼에 참석한 통영문화원의 김주식(86세), 제주년(83세) 부부는 '2008 실버문화축제-전주' 실버스타상 수상자로 어르신문화학교를 통해 전통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활의 활력을 얻으신다며 함박웃음을 지어보였다. 곧 이어 9월 13일 KBS 연출팀의 방문으로 촬영된 영덕문화원의 뱃노래가 영상으로 전해졌고, 현재까지 무려 3천여곡이 전해진다. 평창문화원의 아라리 공연과 함께 단원 이만순(67) 씨의 손자 권진성(10) 군이 동반 출연하여 평창아라리의 한 대목을 깜찍하게 소화해냈다. 평창문화원은 어르신문화학교를 통해 2006년 극단

구성으로 시작, 현재 인간문화재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 평창아라리에 대한 애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끝으로 삼한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울산의 쇠부리 소리를 울산북구문화원 공연단이 재연하면서 흥을 돋우었다. 울산북구문화원은 울산쇠부리보존회를 함께 운영하며 쇠부리 소리 특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 날 방영된 내용처럼 지방문화원을 거점으로 한 지속적인 전통문화의 계승활동과 어르신문화학교 수강생들의 활발한 활동 또한 기대한다.

방송 다시보기 <http://www.kbs.co.kr/1tv/sisa/youth>

1. 채널 및 방송일시

KBS 1TV / 2009년 8월 23일(日) 오전 06:10분 ~ 07:00분

2. 출연자

초대손님 | 담양문화원 (모심기, 들메기 등 농촌민요 풍물단)
 통영문화원 (나전칠기 제작단)
 평창문화원 (평창아라리 연극단)
 울산북구문화원 (쇠부리놀이 구전민요 전승단)

VCR | 영덕문화원(뱃노래 계승단)

M C | 김홍수, 신성원

패널 | 아용식 (코미디언)

가고문적 可考文籍

열하일기

연암의 열하일기

수년 전 열하(熱河)에 간 적이 있다. 하북성에 있는 청동릉(淸東陵)을 구경한 후 승덕(承德; 열하의 현재 이름)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에 문제가 생겨 꼬박 8시간을 달려 밤 11시가 넘어 승덕에 도착하였다. 차안엔 마실 물조차 없었고, 창밖엔 불빛 하나 없는 허허 벌판만이 펼쳐졌다. 다들 지쳐서 이야기소리조차 사그라질 무렵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연암이 한밤중에 열하로 달려가는 장면이 좀 더 실감나게 와 닿지 않아?” 그러자 여기저기서 “열하일기”의 편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연암이 이런 밤에 강을 아홉 번이나 건넜다는 거지.”, “한밤중에 고북구(古北口)를 지나다가 술을 부어 먹을 갈고 이슬에 붓을 적서 성벽에 ‘조선의 박지원, 이곳을 지나노라’ 라고 썼다는 거야.”, “맞아. 나흘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열하로 달려가지.” 열하로 가는 고생스러운 여정을 연암의 열하 행에 비기며 일행들은 잠시 활기를 찾았다.

“열하일기”는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1780년(정조 4), 그의 삼종형인 박명원(朴明源, 1725~1790)이 건륭황제의 칠순 축하사절로 청나라에 가게 되자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청나라에 갔다 와서 쓴 연행록(燕行錄)이다. “열하일기”는 정조에 의해 문체 변형의 주

범으로 지목되었을 정도로 당시에 큰 인기를 끌었다. 당초부터 명확한正本(正本)이나 판본(版本)도 없었고, 여러 전사본(轉寫本)이 유행되어 이본이 많다. 연암의 열하 행은 뜻하지 않게 이루어졌다. 연암 일행의 애초의 목적지는 여느 사신 행차와 마찬가지로 연경이었다. 만수절(萬壽節; 천자의 생일)에 맞춰 도착하기 위해 2천 3백여 리의 길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설 참(站)도 건너뛰며 달려갔지만 황제는 열하에 있는 피서산장에 가고 없었다. 열하까지 가게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며 쉬고 있는데, 깊은 밤 발자국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오더니 열하로 떠나라는 전갈이 온다. 예부에서 조선 사신을 열하로 보낼지 말지를 아뢰지도 않은 채 달랑 보고서만 올린 사실을 알고 황제가 노발대발하자 예부의 관원들이 당장 짐을 꾸려 열하로 떠나라고 재촉한 것이다.

연암의 여행기 ‘열하일기’

연경에서 열하까지는 700여 리. 길은 멀고 일정은 빠듯한 까닭에 행차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했다. 연암은 비공식 수행원이라 가지 않아도 되는 처지였다. 연경에 남아 중국의 선비들과 우정을 나눌까, 열하로 따라갈까 망설이는데, 삼중형이 “자네가 만 리 길을 머다 않고 여기까지 온 건 천하를 널리 구경하고자 함이거늘, 조선인으로선 아무도 밟아 보지 못한 땅을 밟을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것인가?”라고 설득한다. 마침내 연암은 삼중형을 따라나서게 되고, 이렇게 연암이 열하라는 아주 특이한 공간과 만나게 됨으로써, 최고의 여행기인 “열하일기”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본에 따라 체제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열하일기”는 대체로 26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권1 <도강록(渡江錄)>부터 권7 <환연도중록(還燕道中錄)>까지 7편은 여정을 따라가며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쓴 글이며, 나머지 19편의 글은 여정과 별도로 어떤 주제나 대상에 대해 설명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친 글들이다. “열하일기”의 재미는 이 여정 부분에서 무궁무진하게 펼쳐진다. 압록강을 건너 요동벌을 지나 연경에 이르기까지의 노정(路程)은 여타의 연행록과 동일하다. 그리고 연암 일행이 관심을 보이는 유적이나 사물도 유사하다. 그러나 “열하일기”에는 호기심 많고 유머러스한 여행자 연암의 활약상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어, 여행일지(旅行日誌) 같은 느낌을 주는 다른 연행록과는 달리 무척이나 흥미진진하다. 상세한 여정, 사진보다 더 자세한 사물에 대한 묘사, 여행 중의 자잘한 사건들, 낯선 문화에 대한 연암의 호기심과 실수담은 “열하일기”를 최고의 여행기로 만들어 준다.

상상도 못할 기이한 세상, 열하

<성경잡지(盛京雜識)>에는 온갖 방법으로 일행을 따돌리고 혼자 몰래 숙소를 빠져나가 그 지역 장사치들과 밤새도록 필담을 나누는 연암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그 지역 문화를 잘 알지 못해 저지른 실수담도 보인다. 연암이 한 전당포에 들렀을 때 가게 주인이 문 위에 붙일 만한 현관 글씨를 써 달라고 부탁한다. 무슨 글귀가 좋을까 고민하던 연암은 길을 오는 도중에 점포 문설주에 ‘기상새설(欺霜賽雪; 희기는 서리를 능가하여 눈과 겨를 수 있다)’ 이라고 써 붙여 놓은 것을 기억하고는, “장사치들이 자기네들이 애초에 지닌 심지(心志)가 가을 서릿발같이 깨끗하고, 희디흰 눈빛보다도 더 밝음을 스스로 나타내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호기롭게 ‘기상새설(欺霜賽雪)’ 이라고 써 내려 간다. 글씨가 완성되자 점포 주인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이 글귀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는데요.”라고 말한다. 연암은 “저



런 장사치들이 뭘 알겠어?”라고 하며 유유히 떠나간다. ‘기상새설’은 국숫집에 붙여 놓은 간판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열하일기”의 핵심은 당연히 연경에서 열하까지의 여정과 열하 체류 중의 기이한 경험들이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황제에게 벌을 받거나 앓을까 두려워하며 나흘 밤낮을 달려 연암 일행은 열하에 도착하였다. 연암은 열하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세상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몽고, 위구르, 티베트 등 중국 변방의 다양한 이민족들을 만나고, 코끼리와 낙타 등 각종 기이한 동물들과 마주친다. 만수절 축하공연으로 펼쳐진 불꽃놀이와 각종 연희들, 저잣거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환희(幻戲; 요술)는 연암의 눈을 빼놓기에 충분했다. 연암 일행이 열하에서 겪은 가장 큰 사건은 티베트 불교와의 마주침이다. 당시 건륭황제는 티베트의 범왕, 관첸라마를 스승으로 떠받들며 황금 전각을 지어 영접하고 있었다. 황제는 조선 사신단에게 선심을 베풀어 관첸라마를 친견하여 예를 표하라는 명을 내린다. 성리학을 신봉하던 유학자들에게 범왕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어 머리도 조아리지 않고 관첸라마에게 수건을 바친 후 절도 하지 않고 영거주춤 자리에 앉아버린다. 사신단의 무례함이 황제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 결국 사신단은 6일 만에 다시 쫓기다시피 연경으로 되돌아온다. “열하일기”의 긴 여정은 여기서 막을 내린다.

연암의 다양한 논술들

자세한 여정과 여행 중의 에피소드, 연로(沿路)에서 접한 풍경과 사물에 대한 묘사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열하일기”는 그냥 재미있는 여행기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열하일기”가 여타 여행록과 다른 깊이와 무게를 지니게 되는 까닭은 연암의 북학자(北學者)로서의 면모를 드러내 주는 많은 논술들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열하일기”에는 중국의 역사·지리·풍속·토목·건축·선박·의학·인물·정치·경제·경제·사회·문화·종교·문학·예술·고동(古董)·지리·천문·병사 등 거의 전분야에 대한 서술과 논평이 수록되어 있다. <황교문답(黃教問答)>에서는 황교와 서학자(西學者)의 지옥(地獄)

에 관한 논평을 다루었으며, <망양록(忘羊錄)>에서는 음악에 관하여 중국 학자들과 토론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심세편(審勢編)>은 북학(北學)에 대한 예리한 이론을 펼쳤고, <곡정필담(鶴汀筆譚)>은 중국 학자들과 월세계·지전(地轉)·역법(曆法)·천주(天主) 등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연암은 천하를 널리 구경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청나라행을 택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국적인 풍물에 감탄하는 데 머물지 않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중국의 선비들과 정신적 교류를 하고자 하였으며, 중국 문화를 직접 접함으로써 자신의 사유의 폭을 넓히고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열하일기”는 여행기이면서 연암의 사상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사상서라고 할 수 있다.

열하일기 속의 또다른 이야기의 재미

“열하일기”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는 곳곳에 숨어 있는 ‘이야기문학’을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허생전>은 <옥갑야화(玉匣夜話)>에 실려 있다. <옥갑야화>는 열하에서 다시 연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옥갑이라는 곳에서 비장들과 밤을 새우며 주고받은 이야기를 모은 것이다. 여기에는 역관(譯官)에 관한 일화 등 많은 설화들이 실려 있다. <구외이문(口外異聞)> 편은 고북구(古北口) 밖의 기문(奇聞)담(奇聞異談)을 적은 것으로, 반양(盤羊)에서 천불사(千佛寺)에 이르는 60여 종의 기이한 사물과 인물, 건물, 제도 등에 대한 일종의 야사(野史)를 기록한 글이다.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이래 우리 문학사에 는 무수한 여행기가 지어졌다.

그중에서 최고의 여행기를 꼽으라면 당연히 연암의 “열하일기”를 들 것이다. “열하일기”만큼 흥미진진한 여행담을 들려주면서 사상적 깊이가 있는 기행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아마도 연암의 여행자로서의 적극적인 태도, 뛰어난 관찰력, 탁월한 문장력, 유머러스한 기질, 날카로운 비판의식 등에서 기인하는 것일 터이다. 오래 전 동학들과 같이 “열하일기”를 읽으면서 연암의 여정대로 중국 여행을 해 보자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아직 그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언젠가 “열하일기”를 손에 들고 연암이 ‘참 좋은 울음 터’라고 했던 요동벌과 카메라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한 연로(沿路)의 많은 사적들을 답사하고 싶다. 그리고 당시엔 ‘세계’였던 그 중국에서 연암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좀 더 가깝게 느껴 보고 싶다. 오랜만에 “열하일기”를 떠올리니 책 속의 온갖 에피소드들이 와글와글 머릿속에서 살아난다.



장정수 고려대 연구교수
문학박사



기획

韓國의 禮節

—
우리나라는
예절의 나라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한반도(韓半島)의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의해 주목을 끌었던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도널드 맥도널드 교수는 1989년 9월 20일자 우리나라의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민은 통일국가로서 1천5백여 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동질민족이며 유럽인들이 만나체로 숲속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상당한 문화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또한 일본에 문화를 전파해 주었고, 중국문화가 이론의 여지없이 세계의 최고봉에 달했을 때도 중국으로부터 문화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썼다.

중국의 문화가 세계최고의 수준에 달했을 때라면 세계최초이며 중국최고의 성인인 공자가 살았을 때일 것이다. 그 공자가 72세 때 “(중국 사람은) 사람노릇을 못하는구나.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뜰 것이 아니라 따를 자는 자로일 것이다(道가不行이라 乘舟야 浮于海 하리니 從我者는 其由與인저. 論語 公冶長篇).”라 했고, 또 “공자께서 구이(韓國)에 가서 살고 싶어 하시니까 어떤이가 여쭙기를 ‘더러울텐데 어찌하시렵니까?’ 라 하니 공자께서 대답하기를 ‘군자가 시는데 어찌 더러움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子께서 欲居九夷하시니 或曰 陋커니 如之何있고 對曰 君子居之에 何陋之有리오. 論語 子罕篇.).”라고 하였다.

또 소학 명륜장(小學 明倫章)에 보면 공자가 소련 대련(小連 大連) 형제의 효성을 지극히 칭찬하고는 “소련 대련은 한국인의 아들이다(小連 大連 東夷之子也라).”고 하였다.

그 공자가 한국은 군자가 사는 곳이라 했고 한국은 효도를 하는 나라라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공자가 한국을 문화선진국이라 한 것이다. 구자(君子)는 최고의 지성(知性)을 말하는 것이며 효도(孝道)는 최고의 행도(行道, 사람노릇)를 이룸이니 더 말할 것이 없다.

맹자(孟子)는 “선생님(孔子)의 사상·가르침은 두 가지이니 인과 인이 아닌 것이 있을 뿐이다(夫子之道는 二니 仁與不仁而已矣라. -孟子-)”라 하였고, 공자는 인이 되려면 “인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기심을 버리고 예절을 실천해야 인이 될 수 있고, 예절이 아니면 보지

말며 듣지 말며 말하지 말며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仁은 愛이 아니라, 克己復禮면 爲仁이라, 非禮勿視하며 非禮勿聽하며 非禮勿言하며 非禮勿動이니라. -論語 顏淵篇-)고 하였고, 그 예절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 한 것이니 더 무슨 말을 보태겠는가.

1. 한국은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

가. 동방예의지국은 우리 고유명사(固有名詞)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동쪽에 있는 예절의 나라)이라 했다. 우리나라를 동쪽이라 한 것으로 보아 우리보다 서쪽에 있는 중국인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분명하다.

지금은 전 세계가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서쪽에 있는 나라인데도 서방(西方)예의지국이라 하지 않고 동방예의지국이라 하는 것으로 미루어 방향에 관계없는 우리 겨레나라의 고유명사(固有名詞)가 되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가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 한 문헌적 근거를 최초로 밝힌 문서는 1993년 1월 29일에 교육부장관이 문서번호 정신 81120-21호로 시달한 민원회신 문서로서 “귀하가 문의한 ‘동방예의지국’의 출처에 대하여: 孔斌(공빈)이 쓴 ‘東夷列傳(동이열전)’에 ‘東方禮儀之君子國(동방예의지군자국)’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전례연구원(원장 金得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이라 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이열전’은 729년에 발해(渤海) 고왕(高王

大祚榮)의 문신(文臣) 야발(野勃)이 쓴 단기고사(檀奇古史)를 1950년 3월에 경찰교양협조회에서 국역 간행하였는데 그 부록에 실린 글이다. 그 글은 서기전 268년(中國戰國時代 魏 安釐王 10年)에 중국 곡부(曲阜)의 공빈(孔斌, 孔子의 6대손-通鑑-, 8대손-曲阜孔氏族譜-)이 쓴 글이다. 그 동이열전(東夷列傳)에 다음과 같이 씌어졌다.

“옛날부터 동쪽에 나라가 있는데 이름을 동이라 한다(東方有古國 名曰東夷).

방위는 28수(二十八宿)의 기성과 미성의 방향(東方)지역은 백두산에 접해 있다(星分箕尾 地接鮮白).

훌륭한 사람 단군이 나니 9개 부족 구이가 그를 받들어 임금(堯)이 되니 요(堯)임금과 한 때의 일이다(始有神人 檀君 遂應九夷之推戴而爲君 與堯並立).

우순이 동이에서 나와 중국에 들어와 천자가 되어 훌륭하게 다스리니 못 임금 위에 우뚝했다(虞舜 生於東夷而入中國 爲天子至治 卓冠百王). 자부선인이 학문에 통달하고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으니 황제가 그에게서 공부하고 내황문을 받아와서 염제신농씨 대신 임금이 되었다(紫府仙人 有通之學 過人之智 黃帝受內皇文於其門下 代炎帝而爲帝). 소련과 대련이 부모의 상을 잘 치러 3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3년을 근심하니 나의 할아버지(孔子)께서 칭찬하셨다(小連大連 善居喪 三日不怠 三年憂 吾先夫子稱之).

하나라 우임금의 도산 모임에 부루(扶婁, 檀君2세)가 친히 와서 나라의 경계를 정했다(夏禹塗山會 扶婁親臨而定國界).

유위지는 하늘이 낳은 성인(聖人)으로 훌륭한 이름이 중국에도 넘쳐흐르니 이윤이 그 제자로 공부해서 은나라 탕 임금의 어진 재상이 되었다(有爲子 以天生之聖人 英名洋溢乎中國 伊尹受業於其門而爲殷湯之賢相).

그 나라는 비록 크나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고, 그 군대는 비록 강하나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其國雖大 不自驕矜 其兵雖強 不侵人國). 풍속이 순후해서 다니는 이들이 길을 양보하며, 먹는 이들이 밥을 미루며, 남자와 여자가 따로 거처해 자리를 함께 하지 않으니 동쪽에 있는 예스러운 군자의 나라라 할 것이다(風俗淳厚 行者讓路 食者推飯 男女異處而不同席 可謂東方禮儀之君子國也). — 중간생략 —

이렇기 때문에 나의 할아버지(孔子)께서 동이에 살고 싶어 하시면서 누추하지 않다고 하셨다(是故 吾先夫子 欲居東夷而不以爲陋).

— 이하생략 —”

이상을 쉽게 뜻으로 풀이하면 “동쪽의 옛 나라 한국의 임금은 단군인데 중국의 요임금과 한 때이다.

한국인 순임금이 중국에서 한국의 가족사상으로 윤리와 도덕, 정신문화를 가르쳤고, 황제가 한국의 도통한 학자인 자부선인에게서 배우고 와서 생활문화를 일으켰고, 한국인 형제인 소련과 대련이 중국에 와서 효도를 실천해 보였다.

단군의 아들 부루가 와서 국경을 정했고, 이윤은 한국의 성인 유위자에게 배워서 은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한국은 나라가 컸지만 중국을 없인 여기지 않았고, 군대가 강했지만 중국을 침략하지 않았다.

풍속이 아름답고 도타워서 사람들이 길을 양보하며, 경제는 분배정의가 이루어져 밥을 미루며, 남자와 여자는 각기 직분에 충실해 섞이지 않으니 이 나라야말로 동쪽에 있는 예절의 나라요 군자의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의 할아버지 공자께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하시면서 “누추하지 않다”고 말씀 하셨다.”고 한 것이다.



나. 동이열전(東夷列傳)의 뿌리

전항 ‘동이열전’의 기록은 순수한 창작이 아니라 중국 유학의 경전(儒學 經典)에 있는 말들을 종합한 것이다.

중국 고대 왕들의 사적을 적은 ‘서전’의 순전(書傳 舜典)에 보면 “순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설야. 백성들이 친하지 못해서 부모 형제 자녀들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고 불손하구나. 너를 교육부장관을 시키니 아버지는 의롭게 하고(父義) 어머니는 사랑하고(母慈) 형은 우애하고(兄友) 동생은 공손히 하고(弟恭) 자녀는 효도하는(子孝) 다섯 가지 가르침을 공경해 펼치고 너그럽게 하라(帝曰 契 百姓不親 五品不遜 汝作司徒 敬敷五教在寬) 하

셨다”고 했다.

동양의 성인 맹자의 말과 행적을 적은 책인 ‘맹자’ (孟子) 등문공장(騰文公章)에 보면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인(舜)께서 근심이 있으시어 설을 교육부장관을 삼아 인륜을 가르치시니 부자유친이며, 군신유의이며, 부부유별이며, 장유유서며, 봉우유신(孟子曰 聖人 有憂之 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이니라”고 했다.

중국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책 ‘소학’의 계고명륜장(小學 稽古 明倫章)에 보면 공자(孔子)의 말씀으로 “소련과 대련이 부모의 상을 잘 치러 사흘을 지극히 애통했으며, 석달을 깨울 리 하지 않았으며, 한 해를 슬퍼했으며, 삼년을 근심했으니 이들은 동이(한국인의 아들이다(小連大連 善居喪 三日不怠 三月不解 菘悲哀 三年憂 東夷之子也))”고 했다.

이상의 근거를 보면 ‘동이열전’의 기록들은 권위 있는 고전인 유교경전(儒教經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동이(東夷)는 한국이고 이(夷)는 군자(君子)이다

‘동이열전’에 의하면 “한국은 중국보다 문화 선진국이기 때문에 생활문화와 정신문화 및 가족제도와 효도 등을 한국에서 배웠고, 풍속이 순후하니 예절의 나라”라고 하면서 그 책의 이름을 ‘동쪽 오랑개의 이야기’라는 뜻으로 ‘동이열전(東夷列傳)’이라 한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생각은 이(夷)를 오랑개, 비문명인이라 해석하는 데서 오는 편견이다. 만일 이(夷)가 오랑개라면 2,400년전 중국의 성인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순은 동이의 사람이요, 문왕은 서이의 사람이다(舜 東夷之人也 文王 西夷之人也)”고 했으니 순임금과 문왕도 오랑개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夷)를 오랑개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그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夷)라는 글자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서기 100년경에 동한(東漢)의 허신(許慎)이 한자의 형태, 의미, 음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한자 최초의 사전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夷’자를 해설하고 있다.

“이(夷)는 평평하다는 뜻이고, 글자의 구성은 대(大)와 궁(弓)으로 되었으며, 동쪽 지방의 사람이다(夷 平也 從大從弓 東方之人也).”고 하여 오랑개란 말은 없다.

청대(清代)의 단옥재(段玉裁 1735~1815)가 쓴 설문해자 주(說文解字注)에는 동이(東夷)에 대하여 “남방은 蠻閩(만민, 오랑캐)이라 하여 벌레(蟲·충)를 따랐고, 북방은 狄(적, 오랑캐)이라 하여 개(彘·견)를 따랐고, 동방은 貉(맥, 담비)이라 하여 발 없는 벌레(多·치)를 따랐고, 서방은 羌(강, 오랑캐)이라 하여 염소(羊·양)를 따라 그 지닌 성품에 의했는데(南方蠻閩從蟲北方狄從彘, 東方貉從多, 西方羌從羊 順理之性) 오직 東夷(동이, 한국인)는 대(大)를 따랐으니 그것은 대인(大人·君子)이고, 이(夷)의 풍속은 어질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살아서 군자가 있는 죽지 않는 나라이다(惟東夷從大 大人也 夷俗仁 仁者壽有君子不死之國).” 고 했다.

그러므로 夷는 오랑캐가 아니라 동쪽 사람(東方人), 평평하다(平), 온화하다, 평안하다, 어질다(仁), 기뻐하다(喜悅), 크다, 평정하다, 땃땃하다(彘), 쉽다(易), 명백하다(明)는 뜻의 글자이다. 그것을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모화(慕華) 사상으로 자기비하(自己卑下)가 지나친 결과이다.



‘설문 통훈정성(說文通訓定聲)에 보면 “동방(東方)의 사람이다. 대(大)와 궁(弓)으로 되었는데 이(匕)로도 씌어지고 ‘匕’는 옛글자 인(仁)과 같다(東方之人也 從大從弓 夷字亦作匕與古文仁同)” 라고 했으며 한한대사전(韓漢大字典)에 보면 ‘匕는 夷와 仁의 옛글자’ 라고 하였다. ‘夷’는 군자이며 夷의 풍속은 어질기 때문에 仁과 같은 글자인 匕자로 한국인을 표기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孔子)의 말씀과 행적을 적은 ‘논어(論語)’의 공야장(公冶長)편과 자한(子罕)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도가 행해지지 않는구나. 뗏목을 타고

바다에 뜨리니 나를 따를 자는 자로(子路)일 것이다(子曰 道不行 乘桴浮于海 從我者 其由與) 라고 했다.”

“공자께서 구이(九夷·한국)에 살고 싶어 하시니 어떤 이가 여쭙기를 ‘더러울 텐데 어찌 하시렵니까’ 라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살면 어찌 더러움이 있으리요’ 라 하셨다(子欲居九夷 或曰陋 如之何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 고 했다. 이 미 한국은 군자의 나라니까 더럽지 않다는 말이다.

이상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夷)’, ‘동이(東夷)’, ‘구이(九夷)’가 한국일 때에 가능한 해석인데 과연 ‘이(夷)가 한민족인가?’” 라고 반문을 한다.

중국의 모든 역사책에는 한국의 역사를 곁들이는데 그 부분을 ‘동이전(東夷傳)이라 하고 있으며, 중국의 사서(史書)인 ‘통감(通鑑)’의 당기 태종조(唐記 太宗條)에 보면 “고려는 동이이다(高麗 東夷也)”라 했고, 문서심원(文書尋源 十二編)에 보면 “동이는 조선인데 기자를 봉한 땅이고 지금의 고려가 이것이다(東夷 朝鮮 箕子所封之地 今之高麗 是也)”라고 했다. 위에서 말하는 ‘고려(高麗)는 ‘고구려(高句麗)이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한국이 예전의 나라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夷)는 오랑캐가 아니라 인인(仁人) 또는 군자(君子)인 것도 분명하다. 겸양(謙讓)이 지나쳐서 자기비하(自己卑下)가 되면 안 된다. (계속)

거창문화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 부설 노인복합문화관에서는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을 찾아 영화를 직접 상영해주는 "찾아가는 영화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7월 13일 신원면을 시작으로 마리, 북상, 가조, 거창읍 등지에서 추억의 옛날 영화부터 최근에 나온 영화를 상영하여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후원으로 운영된 이번 행사는 극장이 없는 도서지역 및 농촌지역민을 위해 상영할 영화와 장비를 들고 학교 운동장, 마을회관, 노인정 등 생활 속 공간으로 찾아가 직접 영화를 상영하고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하였으며, 영상문화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2009년도 영호강 여름 물놀이 캠프 실시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에서는 지난 8월 10일 영호강변(거창교 밑)에서 학생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영호강 여름 물놀이 캠프를 실시하였다.

거창소방서 119 구조대의 물놀이 안전수칙과 인명구조 시범 및 예방교육 후 물 속 단체 줄다리기, 수박공 수수게임, 북극

곰 얼음놀이 릴레이 경주, 대나무 뗏목 타기, 어항 고기 잡기 등 다양한 물놀이 행사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물놀이 문화체험 행사는 학생들의 건전한 방학 생활을 유도하고 자연 환경 보호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포천문화원

포천의 전통민속자료 조사위원 간담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지난 7월 20일 포천향토사 연구위원 및 포천의 전통민속자료 조사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의 전통민속자료 조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자문위원인 대전대학교 사학과 박경자, 박진태 교수가 참가하여 전통민속자료 발굴, 조사에 대한 자문을 맡았으며, 조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속자료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문경문화원

‘향토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자’로 배우는 충효(忠孝) 2009 문화원 충효교실 개강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은 7월 27일 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100여 명의 초중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2009년 충효교실을 열었다. 문경문화원 충효교실은 우리지역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여름방학을 맞아 향토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자를 통해 충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하는 동시에, 가정에서 효도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학업에만 몰두함으로써 자칫 잊고 지내기 쉬운 우리의 전통 충효사상을 청소년들이 되찾아,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도 올바른 민주시민, 나라를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국민, 아버지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는 효도하는 자식이 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 놓았다. 이번 충효교실은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 운영되는데, 중학생 과정은 ‘향토역사와 문화로 배우는 충효’로써,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속에 존재하는 충효의 의미를 찾아 문경시 학예사들이 강의를 하게 된다.

초등학생과정은 ‘한자로 배우는 충효’로써 옛 선조들이 어릴 때 배운 ‘사자소학(四字小學)’을 기본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신현국 시장이 ‘꿈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

루어진다.’라는 주제의 특강과, 조규생 교육청 학무과장의 ‘공부의 지름길’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으며, 채대진 문화원장은 이튿날 ‘자랑스러운 문경사람이 되자’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게 된다. 문경문화원의 충효교실은 해마다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문경향교와 문경교육삼락회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문경시의 충효교실은 금년까지 5년차이며, 지금까지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이 교실을 수료하여, 지역의 건전한 문화풍토 진작과 지역사회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대강 유역 향토사 대중화사업 물은 강으로 흘러 바다에서 다시 만난다. 해보라 분수령 향토사 문화학교 개강

8월 11일 문경시 농암면에 있는 해보라학교에서 신현국 문경시장과 채대진 문경문화원장, 김학모 향토사연구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지역기관단체장과 권이종 해보라학교 이사장, 명은주 교장, 20여명의 교직원, 30여명의 학생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유역 향토사 대중화사업 ‘해보라 분수령 향토사 문화학교’ 개강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최중수)가 주최하고, 문경문화원(원장 채대진)이 주관하며, 해보라학교(이사장 권이종, 교장 명은주)가 진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청소년 중심, 내 고장 알고 가꾸기 사업’이다. 채대진 문화원장은 개강사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 百戰百勝)이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아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장래에 매우 큰 재산이 될 것이며, 자연 속에 들어 있는 이치를 직접 보고 듣는 이런 공부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는 공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해보라학교 학생들은 그래서 행복해 보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공부해야 것들을 배우는 해보라학교의 프로그램들이 부럽다.’고 말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보라 학생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배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이종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오늘은 해보라 학교에 공식적

이며 가장 의미 있는 행사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다.' 라면서, '아이와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저희 학교를 바쁘신 가운데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무에서 유를 찾아 농암면에 해보라 학교가 이만큼 자리매김한 것은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 어르신들, 특히 시장님과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큰 도움의 결실이었다.' 고 먼저 감사의 인사를 했다. 또한, '이번 향토사 문화학교 사업은 우리 해보라 학생들에게 낙동강 지역의 지리, 역사 그리고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며 지역과 문명의 발전을 위한 확고한 가치관을 만들 것' 이라면서, '이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국토 사랑, 공동체 존중, 자연과 더불어 조화의 정신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한다.' 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격려사에서 '오늘 문경문화원의 「4대강 유역 향토사 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보라 분수령 향토사 문화학교」의 개강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면서, 「나다움 · 너다움 · 우리다움」이라는 교육철학으로 잠재력과 창의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교육의 첫 장을 펼친 지가 몇 달 되지 않았음에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 행복한 학교, 개성이 넘치는 학교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고 격려한 뒤, '여러 관계자분들과 문경시민은 해보라학교 교육철학 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고 다짐했다.

김학모 향토사연구소장은 향토사 안내 순서에서 '1987년 2월 11일에 설립된 문경문화원 향토사연구소는 22년 동안 21질의 향토사 자료를 발간하였고, 앞으로도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발굴하여 전승 하는데 힘쓸 것이며, 오늘을 계기로 향토사가 대중화 되는데 노력할 것이다.' 고 다짐하고, '꾸준히 우리지역의 잊혀져 가는 것이 더 잊혀지기 전에, 없어지는 것이 더 없어지기 전에, 구전(口傳)되는 것들을 구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가기 전에 기록으로 남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시 한 번 다짐하였다.

이후, 학생들과 기관단체장들은 축하 떡을 자르고 개강을 축

하하였으며, 다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개강식을 마쳤으며, 향후 이 프로그램은 매주 2회씩 10월말까지 이론과 탐방, 체험 등으로 운영되며, 해보라학교 교사와 문경시 학예연구사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게 된다.

삼척문화원

삼척전통예절학교 생활예절교실 개설

근래에 이르러 무분별한 서구문명이 생활 속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의 전통예절은 점차 외면당하고 잊혀져가고 있다. 삼척문화원에서는 우리의 뿌리와도 같은 전통예절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삼척전통예절학교를 운영한다. 올해는 8월 10일~8.14일까지 1차 전통예절교실을 개설하여 삼척시민 5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1일차- 예절의 개념, 바른인사법 2일차- 한복 바로 입기, 다도(茶道) 3일차- 관례, 혼인례 4일차- 상례, 제례 5일차- 제례실습) 5일간의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예절의 무지와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쾌한 지침이 되는 생활 예절교실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9월 21일~9월 25일까지 이론과 실습을 겸한 2차 생활예절교실 준비에 있다.

제7기 [청소년 한문 · 예절학당]

관동 제1루 죽서루 경내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삼척문화원에서는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사자소학을 기본교재로 한문 및 예절학당을 개설 운영한지 7년째가 되었다. 이 시대 우리들의 귀여운 꿈나무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다. 삼척문화원에서는 한문과 인생의 지혜와 예절 그리고 멋을 함께 학습하는 여름 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하여 운영했다. 교육은 7. 20(월)부터 24(금)까지 5일간 관내 초등학교생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한문(사자소학), 예절(공수법 및 배례), 즐거운 음악교실, 풍물체험실습 등을 교육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제4차 이사회 및 제2차 운영위원회

지난 8월 18일(화) 11시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제4차 이사회가 열렸다.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등 이사 19명, 감사 2명이 참가했다.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은 지방문화원 지원 분권과부세의 지속 지원 노력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를 거치고 있다는 사황을 보고하며 행사보고와 관련하여 '문화원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고견을 부탁' 한다고 말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사회 후 운영위원회와 함께 2009 전국 문화원의 날 사업계획(안)과 제1회 대한민국 나이 없는 날 사업계획(안) 기획안 보고가 있었다. 2009 전국 문화원의 날은 225개 전국 문화원 참여를 통해 지역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지역문화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10월 14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및 앞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1회 대한민국 나이 없는 날은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대표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인 '나이 없는 날' 로 탄생하였고 향후 세계적 문화 캠페인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나이 없는 날은 9월 9일 홍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사회를 마친 후 운영위원과 임원들이 함께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과 앞마당을 둘러보며 2009 전국 문화원의 날 장소 사용에 관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전국 문화원 참여 '제 1회 대한민국 나이 없는 날' 사전 기획 워크숍

8월 2일, 전국 각지의 어르신 문화학교 시행문화원 대표들이 서울 유스호스텔에 모였다. "제1회 대한민국 나이 없는 날 사전 기획 워크숍" 이라는 타이틀 아래 진행된 1박 2일간의 이 일정은, 2009년 9월 9일 홍대 앞에서 펼쳐지는 실버 파라다이스 '나이 없는 날' 의 개최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기본 계획을 사전에 설명,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사전 기획워크숍에서의 추진경과보고, 프로그램 구성 소개, 프로그램구성별 분임토의, '나이 없는 날' 개최 장소 사전답사 등은 전국 문화원 대표들과 기획단 측의 의견을 조정하고 문제시 되는 부분들에 대해 철저히 준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



지방문화원 운영 편람 발간회의

지난 7월 27일 오후 3시 서울역 회의실에서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운영 전반의 기본자료인 지방문화원 운영 편람을 발간하고자 문화원장및 관계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를 가졌다. 편람의 주요내용은 지방문화원의 연혁과 기능, 문서의 작성과 시행,회의진행의 방법, 지방문화원 제 규정, 지방문화원 운영관련 법령등,기타, 부록(지방문화원 행정양식등)등으로 약 300쪽 이상으로서 상세하게 이루어졌다. 아울러 책자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전문가의 감수를 받은후 전국문화원에 송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발간계획을 가지고 있다.



박광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 울진문화원 예방

박광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은 지난 8월12일 울진의 모 음식점에서 지역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대표들과 문화관광과 직원과의 오찬을 나누며 문화정책에 관한 설명과 함께 지역 문화에 대해 대화를 가진 후 울진문화원을 방문하였다. 박기원 울진군 부군수, 조연갑 행정사무관, 신상구 사무국장이 자리한 이날 전인식 문화원장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높이고 직원들의 문화적 역량강화는 물론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점에 지방문화원장으로 감사드린다고 하고, 박국장님도 그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아울러 박국장은 자신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 문화 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정책기조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책자를 전달 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원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원 장 동 정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장에 박찬극 씨

지난 6월 15일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북도지회(의성)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경상북도지회장에 박찬극 씨(영주문화원장)가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취임식은 8월 6일 안동회관에서 열렸다. 박찬극 경상북도지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경북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거론하며 '취임에 앞서 어려모로 덕망과 식견이 부족한 제가 옹도 경북의 문화 창달에 도움이 될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지금까지 많은 전임회장과 훌륭한 지도력으로 경북 문화원 지회의 맥을 이어온 직전 김종우 지회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찬란한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새로운 문화 창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취임식에는 공원식 경상북도정무부지사, 최중수 한국문화원연합회장, 석현화 안동시 부시장 등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박찬극 경상북도지회장은 건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제14대 경상북도의원과 영주소 백라이온스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225개

지역문화의 향연

2009 전국문화원의 날

일시 _ 2009. 10. 14 (수) 장소 _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 주최 |  한국문화재단
- 주관 | 지방문화원
- 후원 |  한국문화재단